『高峰和尙禪要』의 구결 연구*

고정의**

요약

이 글은 고려 말에 전래되어 禪宗의 필독서로 자리잡았던 『高峰和尙禪要』의 이본 중 15세기부터 17세기의 구결을 보여주는 이본 6종 8권에 나타난 문자 체계와 구결의 표기 양상을 살피고 구결의 목록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禪要』는 1399년 德奇寺에서 처음 복각한 이래 1731년까지 34회에 걸쳐 개판되었고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어 이 시기의 구결을 집약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禪要』에 나타난 문자 체계와 구결 표기 양상은 조선 중기의 불전들에 나타난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각 이본에 사용된 구결자는 87자로 이 중에는 '…/ᄭᅩ, ᄉᆞ, 十' 등의 고형도 포함되어 있다. 각 이본에 기입된 토는 모두 560개로 이본별로는 200개 내외가 나타난다. 그런데 외빙발본(1536년)을 경계로 그 수가 현격히 줄어 이 시기에 구결 표기가 정제되고 단순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구결토의 표기 특징은 조사류와 어미류에 따라 이본별로 차이를 보여 준다.

조사 표기 중 특징적인 현상은 조격 표기에 'ㅈ'와 더불어 한자의 우측 획에 'ノ'자를 기입한 가획형토들이 일반화된 점이다. 처격 조사는 이

* 본고는 2005학년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울산대학교 교수.

본별 분포상 17세기 후반 이후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표기되어 갔음을 보여 준다.

종결어미 중 중요한 형태로는 의문법 어미 'ㅿㅣᄒᆞ, ㅇᆞ'와 2인칭 의문의 'ㄱㅣ', 감동법의 'ㄲㅣ/ㅈㅣ'과 'ㅈᆞᄆᆞㅅㅣ, ㅈᆞᄉᆞㅅㅣ' 등이 보인다. 부동사어미 중 양보의 부동사형 어미 'ᄆᆞᄀᆞ'과 'ᄀᆞᄀᆞ'은 혼용되다가 17세기에 들어 'ᄆᆞᄀᆞ'으로 합류되었다. 원인·조건의 부동사어미 'ㅁᄀᆞ大', 'ㅌᄀᆞ大/ㅌᄀᆞㅁ'는 중세국어의 '곤대, -관ᄃᆡ/완ᄃᆡ'와 의미기능이 일치한다. 긍정대상의 어미 '-디위'에 대응하는 'ㅿ位/ㅿᄉᆞ'와 여말선초의 자료에 등장하는 'ᄉᆞᄉᆞᄀᆞ' 등도 주목되는 형태다.

선어말어미로는 1인칭 주어에 대한 확인법의 '-果/ᄒᆞ-'와 과거시제의 '-더-'의 선대형 '-드-'에 대응되는 'ㅅ'가 주목된다.

동명사어미로는 'ㅅᄉᆞ'류, 'ㅅ勿-'류, 'ㅅᄉᆞᄒᆞᆷ'류 등이 쓰이고 'ㅅᄀᆞᄂᆞ'과 같이 동명사 'ㄱ'이 쓰인 예가 눈에 띈다. 비유 구문은 '... ㅅᄉᆞ 如... (ㅅᄉᆞ)-' 또는 '...ㄴ 如... (ㅅᄉᆞ)-'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ㅅᄉᆞ'가 'ㄴ'와 공존하게 된 것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다.

*핵심어: 고봉화상선요, 선요, 구결, 구결자, 구결토, 문자체계

1. 서론

이 글은 고려 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禪宗의 十科目의 하나로 자리잡았던 『高峰和尙禪要』[1](이하 『禪要』)의 구결의 문자 체계와 구결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禪要』는 金剛·楞嚴·節要·都序·書狀·緇門·自警·初心·拈頌

1) 『禪要』는 『高峰和尙參禪節要』, 혹은 『高峰禪要』 『高峰原妙禪師禪要』 등으로 불리며 卍續藏 第122冊에 수록되어 있다(김선영 1997:165).

등과 더불어 禪宗의 十科目의 하나로 자리잡았고 조선조에 들어 四集科의 하나로 결집되어 禪宗의 학습서로 채택되었다.[2] 『禪要』는 이와 같이 선 수행의 필독서로 널리 읽혀 왔으므로 『禪要』의 구결은 어느 정도 당대 구결의 전형적인 모습과 아울러 구결의 변화 모습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15세기 초반에서 17세기 말의 구결을 보여주는 『선요』 8종에 나타난 구결자와 토를 비교하여 이들의 표기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에 나타난 구결의 목록을 정리하고자 한다.

『禪要』는 선초 이후의 중요한 구결 자료 중의 하나다. 그러나 지금까지 『禪要』의 구결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남권희(1999:490-491)에서 송광사판(규장각 소장청구번호:古朝21-441)의 서지와 함께 구결자의 목록과 특징이 간단히 소개되었고, 장윤희(2001:31-32)에서 규장각 소장 『禪要』의 이본 7종과 이들에 나타난 구결의 특징에 대한 소개가 있었을 뿐이다.

2. 『고봉화상선요』의 서지와 자료적 성격

『禪要』는 중국 南宋의 고승 原妙(호: 高峰)[3]의 法語를 그의 侍者였던 持正이 기록하고 문인 洪喬祖가 가려 엮은 것으로 禪의 요령을 간추려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은 禪 수행의 지침서로 여겨져 고려시대 이

2) 『禪要』는 단독으로 판각된 경우도 있지만 四集科에 속하는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大慧普覺禪師書』 『禪源諸銓集都序』와 함께 동시에 간행된 것이 10회나 되어 四集科의 교과목으로서 교육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한 경우가 많다(김선영 1997:170).

3) 法號는 高峰이고 俗姓은 徐씨이며 南宋 말기인 1238년 3월 23일 江蘇省 蘇州府 吳江縣에서 출생하고 1295년 12월 1일 端坐入寂하니 歲壽 57세이며 法臘은 43세였다. 그의 저서로는 『禪要』 외에 『高峰原妙禪師語錄』 上·下가 있다.

후 우리나라 승려의 필독서로 채택되었고 현재에도 불교 전문강원의 중등과정인 四集科의 세 번째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禪要』는 고려 말 1358년 元의 集雲精舍에서 重刊한 판본을 들여와 1399년 德奇寺에서 처음 복각하였고 1501년 鳳棲寺에서 새롭게 판하본을 써 개판하기 시작하여 1731년까지 34회에 걸쳐 개판되었다. 이 중 刊年이 밝혀진 것은 30종으로 14세기에 1종, 16세기에 12종, 17세기에 15종, 18세기에 2종으로 16세기와 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김선영 1977).[4]

『禪要』는 序文(洪喬祖)과 跋(朱穎遠) 그리고 本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示衆 12편, 結制示衆 2편, 解制示衆 3편, 立限示衆 1편, 端陽示衆 1편, 除夜小參 2편, 晩參 1편, 開堂普說 1편, 示信翁居士 洪上舍 1편, 示理通上人 1편, 示直翁居士 洪新恩 1편, 答直翁居士書 1편, 通仰山老和尙疑嗣書 1편, 室中三關 1편 등 29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行字數에 따라 10행 18자본, 8행 18자본, 10행 20자본 등 3종[5]이 유통되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자료는 이 중 다음 8종으로 간략한 서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6]

1) 덕기사(가)본 (국립도서관소장본/한貴古朝21-142) <약칭: 덕(가)>
木版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定宗1(1399)

---

4) 『禪要』의 간년별 이본에 대하여는 김선영(1977:168), 판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선영(1977) 참조. 이 글은 『禪要』의 撰述과 내용, 『禪要』의 간행 및 異板本, 판본 계통간의 原文校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禪要』의 각 판본을 조사하여 간행시기별, 지역별로 간행 사항을 분석하고 판본간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5) 『禪要』의 異版本에 대하여는 김영선(1997:171-196) 참조.

6) 국립도서관소장본과 규장각본은 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서지는 간략 서지를 참고로 하였음.

1책(43張). 四周單邊 半郭 17.7×12.6cm. 有界, 10行18字. 版心: 上黑魚尾. 25.0×15.2cm

刊記: 智異山 德奇寺 開板 建文元年 己卯(1399) 八月日 重刊

2) 덕기사(나)본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본) <약칭: 덕(나)>

重刊木版本. 智異山 德奇寺 1冊(47張)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葉匡郭: 17.2×12.6cm. 有界, 10行18字. 版心: 上黑魚尾. 22.7×15.4cm

刊記: 智異山 德奇寺 開板 建文元年 己卯 八月日 重刊 智異山 德奇寺 開板

3) 심원암본 (국립도서관소장본/한貴古朝21-142) <약칭: 심원/심>

木版本. 聞慶 深源菴. 중종20(1525)

1冊(53張). 四周單邊 半郭 19.6×12.5cm. 無界, 8行18字. 內向黑魚尾. 25.8×15.8cm. 版心題: 要.

刊記: 嘉靖四年 乙酉 孟春有日 慶尙道 聞慶地 華山 深源寺 開刊

4) 외빙발본 (국립도서관소장본/古1748-29) <약칭: 외빙/외>

木版本. 寧邊妙香山 外氷鉢. 중종31(1536)

1冊(45張). 四周單邊 半郭 19.8×12.5cm. 無界, 8行18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下向黑魚尾. 25.4×15.4cm. 版心題: 要.

刊記: 嘉靖十五年 丙申 三月 寧邊地 妙香山 外氷鉢 開板

5) 능인암본 (울산대학교 아산도서관소장본) <약칭: 능인/능>

木版本. 刊寫地未詳. 能仁菴. 선조37(1604)

1冊(53張). 四周單邊 半郭 18.8×12.5cm.. 無界, 8行18字. 下內二葉花紋魚尾.28.6×17.54cm.. 版心題: 要.

刊記: 萬曆三十二年 甲辰 春 能仁菴 開刊 移鎭于 雙溪寺

6) 표훈사본 (국립도서관소장본/위창古1787-17) <약칭: 표훈/표>

木版本. 金剛山 表訓寺寧. 현종3(1662)

1冊(54張). 四周單邊 半郭 17.4×12.2cm. 無界, 8行18字. 註雙行. 內向黑魚尾上. 28.7×18.0cm. 版心題: ----

刊記: 康熙元年 壬寅 孟冬 江原道 淮陽都護府 金剛山 表訓寺 開板

7) 운흥사(가)본 (국립도서관소장본/古1748-28) <약칭: 운(가)>

木版本. 蔚山 雲興寺. 숙종7(1681)
1冊(53張). 四周單邊 半郭 18.1×12.5cm. 無界, 8行18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28.5×18.1cm. 版心題: 要.
刊記: 康熙二十年 辛酉 六月日 慶尙道 蔚山 圓寂山 雲興寺江 開板

8) 운흥사(나) 본 (국립도서관소장본/한 古朝古21-41) <약칭: 운(나)>
木版本. 蔚山 雲興寺. 숙종7(1681)
1冊(53張). 四周單邊 半郭 18.4×12.5cm. 無界, 8行18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29.0×18.0cm. 版心題: 要.
刊記: 康熙二十年 辛酉 六月日 慶尙道 蔚山 圓寂山 雲興寺江 開板

이들 중 '덕기사(나)본', '심원사본', '능인암본', '표훈사본', '운흥사(나)본' 등은 序와 跋, 本文을 모두 갖추었으나 '덕기사(가)본', '외빙발본', '운흥사(나)본'은 本文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심원사본'은 15ㄱ, '능인암본'은 서1ㄱ, '외빙발본'은 11, 12, 13장이 결장된 낙장본이다.

위 이본 중 '덕기사(가)본'과 '덕기사(나)본', '운흥사(가)본'과 '운흥사(나)본'은 각각 동일본이다. 그러나 이들에 보이는 구결은 부분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 다른 이본과 함께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덕기사본'은 刊記가 建文元年으로 정종1년(1399)이나 모두 후쇄본[7]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구결은 후대의 구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덕기사(가)본'은 'ㅏ', 'ᄴ, ᄽ', 'ㄱㅅㄴ', 'ㅅㄱᄒ' 등 여말선초의 구결이 쓰이는 등 '덕기사(나)본'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구결을 보여 준다.[8] 이로 미루어 '덕기사(가)본'은 15세기 초반의 구결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禪要』 8종은 15세기 초에서 17세기 말 내지 18세기 초의 구결을 보여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7)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에 따르면 '덕기사(가)본'은 후쇄본이다.
8)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에 따르면 '덕기사(가)본'은 후쇄본으로 인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기입된 구결의 모습으로 보아 15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문자 체계와 표기 양상

3.1. 문자 체계

이 글에서 다룬 『禪要』 8종에 기입된 구결토는 모두 560개다.[9] 이본별로는 '덕기사(가)본'에 230개, '덕기사(나)본'에 163개, '심원암본'에 230개, '외빙발본'에 293개, '능인암본'에 161개, '표훈사본'에 158개, '운흥사(가)본'에 117개, '운흥사(나)본'에 160개다. 그러나 이 중에는 이표기의 중복 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500여 개 정도이다. 각 이본에 나타난 구결의 수에 비해 이들에 나타난 구결의 수가 500여 개를 넘는 것은 이본에 따라 그 이본에만 나타나는 토들이 많기 때문이다. 각 이본에 나타난 구결의 유일형은 '덕기사(가)본'에 71개, '덕기사(나)본'에 37개, '심원사본'에 55개, '외빙발본'에 52개, '능인사본'에 25개, '표훈사본'에 28개, '운흥사(가)본'에 16개, '운흥사(나)본'에 18개 등이다.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외빙발본'을 경계로 현격히 그 수가 적어져 이 시기를 경계로 이만큼 구결 표기가 정제되고 토가 단순화되어 갔음을 보여 준다.

각 이본에 나타난 유일형 중 특징적이거나 중요한 것을 몇 개씩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1. 丄乀ㅅ又ㄱ宀, 丄ヒ午, ㅁㄱ大, ホ乀丨, 土七ㅅヒ, ᅟᅟ, レ丶ㄱ, ヒ入十, 言ㄱ丁, ミ, ノリ丶ロ, ノㄱ入ᅟᅟ, ノㄱムㄱ, ノㄱレ, ㅅ又ㄱ土, ㅅ入乀丨, ㅅ入ニ乀丨, 十 <덕기사(가)본>

2. 乀又小丨, 去ヒ, 又ミ, ヒ又丨, 月七ㅅリ丶, ᅟᅟ, ノレㅅリ午, ㅅヒㄱヒ, ㅅㄱ入ᅟᅟ, ㅅ乙土, ㅅ兒ト, ㅅ兒午ヒ, ㅅリ彡久 <덕기사(나)본>

---

9) 이 중에는 'ㅁ/舌', 'ㄱ/也', 'ᅟᅟ/ᅟᅟ', '十/ミ' 등과 같은 이체자나 복합토들이 포함되어 있다.

3. ㄴ丶ㄴㅣㅅㄱㅓㅎㅏㅌ, ㅁㄱ, ㅂㄴㅣ, ㅈㅗㅌ, ㄱㅁㅅㅏㅌ, 丶ㄴㅣㅅ 巴口, 丶ノ勿又, ㅋ一, ㅓㅎ月ㄴㅗ, ㅅ又丶口, ㅅㅅ音斗, ㅅㅗㅏㄱ 广ㄱ, ㅅㅗ午ㄴㅣ<심원암본>
4. ㅅㄴ其ㄴ, ㄴ又ㄱㅗ, 果丶ㅅ久, ㅈㅗㅌ, ㅍㅅㄲㅗㅌ, ㅗ位, ㅗ叱ㅅ ㅋ, 月ㅅㄲ尸ㄴㅌ, ㅓ了, 朩, ノㄱ朩又, ㅅㄱ夕, ㅅガニㄴㅣ, ㅅㅅ 未, ㅅㅋㅣ可 <외빙발본>
5. ㄷニㄱ万ㄱ, 月ㄴㅅㄱㅣ丶, ノ大, ノ土, ノㄱㄴ七可, ㅅㅌㄱ, ㅅ士午乃, ㅅㅋㄴㅣ, ㅅㅋㄷニㅌ <능인암본>
6. 女ㅌㅏ, 斗, 朩丶ㅅ久, 丶ㅌㅣノㄱㅣ丶, ㅕㄱㅣ丶, ㅋ女ㅅㅋ, ノ勿し, ㅅㄴㅣ, ㅅㅣ丶, ㅅ士午ㄴㅣ<표훈사본>
7. ㅏ弋, 巨ㄴ丶, ㄱ氐, ㅣ, ㅗㅅ, ㅅㅌㅣ, ㅓ万ㄱ, ㄴ也, 土衆, ノ弋, ㅅㅅ弋 <운흥사(가)본>
8. ㅁㅅ乙士ㄴ, 又ㄴㅣ, 又丶ㅅㄱㅓㅌ, 氐, 月ㅌㅅㅌ, 丶ㅌㅣㅁ, 丶ㅅニ ガㄴㅣ, ㅕㅅㄱㅓㅌ, ㅅㅌㄱ <운흥사(나)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이본에 나타난 토는 560여 개인데 이본별 구결자는 '덕기사(가)본'에 50자, '덕기사(나)본'에 52자, '심원암본'에 51자, '외빙발본'에 55자, '능인암본'에 48자, '표훈사본'에 50자, '운흥사(가)본'에 52자, '운흥사(나)본'에 48자 등 대체로 50여 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을 종합하면 (2)와 같고 이들의 문헌별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2) 可云去巨口古木果ㄱ乃尹女又了ㅌㅌㅣ夕大力ガ宁氐丁刀ヨ斗斗土ホ入月 ムぜし乙丶ホ尸…ッ衆リ古音广万久ア勿ン未巴七叱ㅕ人全一戸小ニ士 兒ㅋ尸厂つ也オ ㅕ今言ミ一亦レ午ト位ラ丶其土ノ方ン十

	독음	구결자	덕(가)	덕(나)	심원	외빙	능인	표훈	운(가)	운(나)
1	가	可	○	○	○	○	○	○	○	○
2	거	厶	○	○	○	○	○	○	○	○
		去		○						
		巨							○	○
3	고	口	○	○	○	○	○	○	○	○
		古	○			○				
4	과	木	○	○	○	○	○	○	○	
5	ㄴ	亻	○	○	○	○	○	○	○	○
6	나	乃	○	○	○	○	○	○	○	○
		尹					○	○	○	
7	녀	女		○				○		
8	노	又	○	○	○	○	○	○	○	○
9	뇨	了				○				
10	니	匕	○	○	○	○	○	○	○	○
11	ㄴ	匕	○	○	○	○	○			○
12	다	丨	○	○	○	○	○	○	○	○
		夕				○				
13	대	大	○	○	○	○	○	○	○	○
		弋	○						○	
14	더	力		○	○		○	○		○
		刀			○	○	○			○
15	뎌	疒	○							
16	뎡/졍	丁	○		○	○	○	○	○	○
17	도	刀	○		○	○	○	○	○	○
		刁	○	○						
18	두	斗			○					
		豆						○		
19	디	土	○	○	○	○	○	○	○	○
20	ㄷ/돈	木				○		○		
21	ㄷ/돌	月		○	○	○	○	○	○	○

	독음	구결자	덕(가)	덕(나)	심원	외빙	능인	표훈	운(가)	운(나)
22	듯/둘	入	○	○	○	○	○		○	○
23	디	ム	○	○	○	○	○	○	○	○
24	ㄹ	乚	○							
		乙		○	○	○	○	○	○	○
25	라	丶	○	○	○	○	○	○	○	○
		丆		○		○				
26	러	尸	○	○	○	○	○	○	○	○
27	로	灬	○	○						
		罒		○						
28	록	彔							○	
29	리	刂	○	○	○	○	○	○	○	○
30	마	广	○		○	○				
31	만	万		○	○		○	○	○	○
32	ㅁ	亡		○				○		
		𠂤			○	○				
33	며	久	○	○	○	○	○	○	○	○
34	면	𠂉	○	○	○	○	○	○	○	○
35	므	勿			○			○		
36	미	丷			○		○	○	○	
		未				○				
37	ㅂ	巴			○					
38	ㅅ	七	○	○	○	○	○	○	○	○
		𠂢				○				
39	사	氵	○	○	○	○	○	○	○	○
40	샤	人	○	○	○	○	○	○	○	○
		𠂆		○						
41	셔	一	○	○	○	○	○	○	○	○
42	소	尸				○			○	
43	쇼	小	○	○	○	○	○	○	○	○
44	시	二	○	○	○	○	○	○	○	○
45	ㅅ	士	○	○	○		○	○	○	○

	독음	구결자	덕(가)	덕(나)	심원	외빙	능인	표훈	운(가)	운(나)
46	슨	見		ㅇ						
47	아	彳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阝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48	애	厂						ㅇ	ㅇ	ㅇ
49	야	冖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也							ㅇ	ㅇ
50	어	扌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令					ㅇ			ㅇ
		扌	ㅇ							
51	언	言	ㅇ							
52	여	丶	ㅇ							
		亠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亦				ㅇ				
		乀		ㅇ						
53	오	午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54	와	卜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55	위	位				ㅇ				
56	의	氵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57	이	乀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58	져	氐							ㅇ	
59	제	其				ㅇ				
60	토	土							ㅇ	
61	호	丿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62	히	丂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63	ᄒᆞ	丷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64	힉	十	ㅇ							
합계		88	50	53	51	55	48	50	52	4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이본에 나타난 구결자는 자형상으로 모두 87개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일부 이체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된 차자는 71종이다. 위 구결자 중 일부자는 위의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히 한정된 자료에만 나타난다.

2번의 'ᄐᆞ'는 'ᄐᆞᄂᆞᆞ'(운(가):14ㄱ)와 같이 '운흥사(가)본'에 한 번 나타났는데 흔히 조선 중기 이후의 儒書에 쓰이던 자형이다. 37번의 'ᄇᆞ'는 '심원암본'의 'ᄀᆞᄉᆞᄂᆡᄂᆞᄇᆞᄆᆞ'(심:47ㄴ)에 한 번 쓰였고, 64번의 '十'는 '덕기사(가)본'의 '於是十(덕(가):3ㄱ)에 한 번 나타난다. 52번의 'ᄒᆞ'는 '誠哉ᄂᆞ 是言也ᄒᆞ'(외:10ㄱ)와 같이 '외빙발본'에 오직 한 번 영탄의 호격으로 나타나고, 46번의 'ᄇᆞᆫ'는 '덕기사(나)본'에 'ᄂᆞᄇᆞᆫᄃᆞ'(덕(나):29ㄴ), 'ᄂᆞᄇᆞᆫᄉᆞᄒᆡ'(덕(나):38ㄴ)과 같이 두 번 쓰였을 뿐이다.

그런데 22번의 'ㅅ'은 어미 '-든'의 경우 'ᄒᆞㅅ(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10] 그러나 명사 'ᄃᆞ'의 대격형 '둘'의 경우에는 'ㅅ(ㄴ)'(덕(가).덕(나).외)과 'ᄆᆞᆯ(乙)'(덕(가).덕(나).심.외.능.표)이 혼용되다가 'ㅅ(ㄴ)'은 '외빙발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아 17세기에 들어 'ᄆᆞᆯ'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 준다.[11]

위 표의 구결자를 표기 양상에 따라 유형별[12]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해체와 약체가 함께 쓰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이 8종 16개의 자형이 사용되었다.

(3) ᄎᆞᆯ/ᄎᆞᆺ, ᄀᆞᆫ/ᄆᆞ, ᄆᆞᆺ/ᄒᆞ, ᄀᆞᆯ/ᄒᆡ, ᄒᆡᆫ/ᄀᆞ, ᄯᅩ/ᄀᆞ, ᄒᆞ/ㅡ, ᄒᆞᆷ/ᄉᆞ

'ᄎᆞᆯ, ᄎᆞᆺ' 중 정해체 'ᄎᆞᆯ'는 '덕기사(나)본'에 두 번(ᄎᆞᆯ乙.37ㄴ, ᄎᆞᆯᄇᆞ.1ㄴ) 나타난다. 'ᄐᆞ'는 '운흥사(가)본'에 쓰인 'ᄐᆞᄂᆞᆞ'(14ㄱ)가 유일하다. 'ᄀᆞᆫ,

10) '표훈사본'에서는 'ᄎᆞᄒᆞ'(표:7ㄴ), 'ᄒᆞᄒᆞ'(표:16ㄴ)과 같이 'ᄒᆞ'이 쓰이고 'ㅅ'이 쓰인 예가 없다.

11)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儒書의 명사의 대격형 '둘'의 표기에 'ᄆᆞᆯ(乙)'만 쓰인 것(고정의 2005)과 비교된다.

12) 字形에 따른 구결자의 분류 방식은 남풍현(1990, 1995) 참조.

ㅁ' 중 'ㅁ'는 의문형어미와 연결어미에 함께 쓰였는데 '古'는 '덕기사(가)본'(1ㄴ)과 '외빙발본'(14ㄴ)에서 의문형어미로만 사용되었다. '果, ホ' 중 '果'는 '果丶ソ久'(외:37ㄱ)와 같이 선어말어미 '-과-'에 한 번 쓰였고 'ホ'는 공동격조사와 'ホ丶ソ久, ホ乀ㅣ'등의 선어말어미 표기에 사용되었다.

둘째, 동일한 차자의 약체가 두 개 이상 다른 형태로 쓰인 것으로는 다음 7종이 보인다.

(4) ㅣ/タ, カ/カ, 丶/ホ, ⺍/ッ, 全/ヘ, オ/今, ミ/ナ

이들도 이본에 따라 각각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 'ㅣ, タ' 중 'タ'는 '외빙발본'에만 나타나는데 'ㅣ'와 더불어 '又タ, 又士乀タ...' 등과 같이 종결어미에만 사용되었다. '丶, ホ' 중 'ホ'는 '덕기사(나)본'과 '외빙발본'에서만 나타나고, '⺍, ッ' 중 '⺍'는 '덕기사(가)본'에 한 예(故⺍.4 ㄴ), 'ッ'는 '덕기사(나)본'에 한 예(向虛空裏ッ.2ㄱ)가 보일 뿐이다. '全, ヘ' 중 '全'는 '덕기사(나)본'에 오직 한 번 쓰였을 뿐(ソ全. 덕(나):5ㄱ) 그 외는 모두 'ヘ'로 표기되었다. 'オ, 今' 중 '今'는 용례가 여섯 예에 지나지 않는다. '운흥사(나)본'에 한 번(今し.13ㄱ) 그리고 '능인암본'에 다섯 예(今乙, 今ヒ, 今ヒト, 今入ㄱ, 今ㅣ)가 보일 뿐이다.

셋째, 동일한 음의 표기에 이체자가 사용되거나 상이한 구결자나 표기형이 사용된 것은 다음과 같다.

(5) 1. カ/ヲ, 斗/斗, ㅣ/タ, 丶/ホ, オ(<オし)/今(<今乙), 全/ヘ, ミ/ナ/ホ
2. 土(<土乀丶)/巨(<巨乀丶), 乃/尹, 乙(土乙)/ヒ(<去ヒ), 入(<ノ乁入又)/ホ(<ノ乁ホ又), 大(<トㄱ大)/ム(<トㄱム), ム(<ノム)/大(<ノ大)/ヤ(<ノヤ), 尸(<尸丶)/尸(<尸丶), 又/⺍(ッ), 未/ソ, 小(<乀又小ㅣ)/尸(<又尸乀ㅣ), オ(今)/女(<女ヒト), ミ(ナ, ホ)/乚, 入(<

ㅇㅅ)/ㅎ(<ㅇㅎ)

3. ㅅ(<ㅅㄱㅅ)/ㅅㄴ(<ㅅㅅㄴ), 月乙(<ㅅㄱ月乙)/月(<ㅅㄱ月), ㅁㄱ(<ㅁㄱㅜ)/ㅇㄱ(<ㅇㄱㅜ), 广ㄱ(<ㅇㄱ广ㄱ)/万ㄱ(<ㅇㄱ万ㄱ)

(5.1)은 동일음 표기에 이체자가, (5.2)는 상이한 구결자가 사용된 예이고, (5.3)은 하나의 구결자나 혹은 구결자의 결합으로 표기한 예이다.

넷째, 정해체만 나타나고 약체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는 다음 네 자가 보인다.

(6) 其, 衆, 勿, 未, ㅁ, 位

이 구결자들은 용례가 겨우 한두 개씩 나타나는 보기 드믄 예다. '其'는 '외빙발본'에 'ㅅㄴ其ㄴ'(2ㄴ), '衆'은 '운흥사(가)본'에 'ㅗ衆'(18ㄴ)과 같이 한 예씩 보인다. '勿'은 '심원사본'에 'ㅣㅅ勿又(33ㄴ), 'ㅅ勿又'(27ㄱ), '표훈사본'에 'ㅅ勿乙'(16ㄴ) 등 세 예, '未'는 '외빙발본'에 'ㅅㅅ未'(35ㄴ) 한 예, 'ㅁ'은 '덕기사(가)본'에 'ㅁㄱㅜ'(12ㄴ) 한 예가 나타난다. 이들 중 '未'는 'ㅅㅅ', 'ㅅㅅㅅ'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ㅅ'로 나타나고, 'ㅁ'은 'ㅇㄱㅜ, ㅇㄱ万(ㄱ), ㅇㄱ广ㄱ'에서와 같이 'ㅇㄱ'으로 표기되었다. '位'는 'ㅗ位'(외:16ㄴ)에 한 번 쓰였는데 '운흥사(가)본'에서는 'ㅗㅅ'(4ㄱ)로 나타났다.

3.2. 표기 양상

『禪要』의 구결 표기 양상은 15세기 이후의 불경의 구결 표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간단히 몇 가지 특징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결에서 계사 'ㅅ-'와 동사어간 'ㅅ-'는 흔히 생략되었다. '표훈사

본'과 '능인암본'에는 이 중 'ㅅ-'가 전연 나타나지 않아 극단적인 생략을 보여 준다. 이 외에는 다음과 같이 일부 구결자가 생략된 예들이 보인다.

(7) 1. ㄷ/ㅅㄷ, ㄱ月(국(가).2:7ㄱ)/ㅅㄱ月, ㄲ/ㅅㄲ,
2. ㅁ/ㅅㅁ, ㅂㄷ/ㅅㅂㄷ, ㄴㄷ/ㄴㄷㅅ
3. 月ㅗ(외:4ㄴ)/月ㅊㅗ(심:4ㄴ)
4. ㅿ大(운(가):28ㄴ)/ㅿㄱ大(운(나):28ㄴ), ㅅㅗ/ㄱㅅㅗ
5. 大ㄱ/ㄱ大ㄱ. 大/ㄱ大
6. ㅅㄱㅅ(덕(가):4ㄱ)/ㅅㅅㄴ(덕(가):6ㄱ), ㅅㄱ月/ㅅㄱ月乙
7. ㅅㅗ(덕(가):11ㄱ)/ㅊㅅㅗ(덕(가):3ㄱ)
8. ㅅㄱㅣ可(외:14ㄴ)/ㅅㄱㅊㅣ可(능.심.외:15ㄱ)

(8)은 말음이 첨기된 예로 두어 개가 보일 뿐이다. (8.1)은 '月'의 말음 'ㄹ'이 첨기된 예이고, (8.2-3)은 '万'과 '言'의 말음 'ㄴ'이 첨기된 예인데 한자음 표기에 말음을 받쳐 적은 것이 독특하다.

(8) 1. ㅅㄱ月/ㅅㄱ月乙
2. ㅇㄱ万/ㅇㄱ万ㄱ (능:서1ㄴ, 심.운(나):32ㄴ, 표:27ㄱ>
3. 言ㄱ丁(덕(가):12ㄴ)

한편 대표음이 전용된 예는 널리 알려진 '又'와 '乙' 외에 '女, 小, 士' 등이 보인다. '女'는 독자적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데[13] (9.1)의 '女ㅂㅏ'와 (10.1)의 'ノ女ㅅㄱ'는 각각 'ㅇㅂㅏ'와 'ノㅣ丶'에 대응되어 '어'와 '려'의 표기에 전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

13) '女'가 독자적으로 쓰인 경우는 영탄의 호격에 쓰인 예를 들 수 있다(고정의 2005:24).
大哉ㅅ 易也女 斯其至矣又ㅋ(근사록(국(가):1.5ㄱ)

(9) 1. 飮不濕羹ㅅ口 伸脚打眼ㅅㄱ 逍遙度日女ヒト(표:2ㄴ)
2. 飮不濕羹ㅅㄱ/ㅅ口 伸脚打眼ㅅㄱ 逍遙度日オヒト/ㅅリオヒト(심/외:2ㄴ)

(10) 1. 現前學般若菩薩ㅅ 必要明此一段大事ノ女ㅅㄱ(표:4ㄴ)
2. 現前學般若菩薩 必要明此一段大事ノリ丶ㅅㄱ(심.능.운(나):4ㄴ)

한 예밖에 보이지 않지만 (11.1)의 'ㅅ又小ㅣ'는 (11.2)의 '又尸ㅅㅣ'에 대응되어 흔히 'ㅅ小一'의 '쇼'에 쓰인 '小'가 '尸'와 동일한 음의 표기에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11) 1. 進云 恁麽則言言ㅅ 見諦ヤ 句句ㅅ 朝宗ㅅ又小ㅣ(덕(나):1ㄴ)
2. 進云 恁麽則言言ㅅ 見諦ヤ 句句ㅅ 朝宗又尸ㅅㅣ(덕(가).표:1ㄴ)

다음 (12.1)의 'ㅅ乙土ㅅ'의 '土'는 'ㅅ'음이 'ㅈ'음으로 전용된 예다. 'ㅅ乙土ㅅ'는 'ㅅ乙#土ㅅ'의 구성으로 'ㅅし其ㅅ'의 시간명사 '제'에 대응한다.

(12) 1. 山僧ㅅ 昔年ㅋ 在雙徑ㅅ乙土ㅅ 歸堂未及一月ㅅㄱ(운(나):2ㄴ)
2. 山僧ㅅ 昔年ㅋ 在雙徑ㅅ乙其ㅅ 歸堂ㅅㄱ 未及一月ㅅㄱ(외:2ㄴ)

구결에서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간 'ㅅ-'가 뒤에 평음의 어미와 유기음으로 축약된 예로 (13)의 'ㅈ', (14)의 'ㅁ', 'ㅁㄱ', (15)의 'ㅣ/ㅎ' 등이 보인다. 여기에 (16)의 '土衆'을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은 음이 전용된 예는 아니지만 '호-+-도록'의 축약을 보여주는 점에서 앞의 예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 준다.

(13) 1. 高峰高峰ㅍ 你 有甚長處ㅁㄱ大 開得者般大口ヤㅈ入(덕(가):33ㄴ)

2. 七零八落ㆍㄱ 冷眼看來ㅿㄱ大 正謂掘地討天ㄴㆍ(심:14ㄱ)

(14) 1. 師云 獅子ㄱ 咬人ㅁ 韓獹ㄱ 逐塊ㄴᄒᆞᄂᆡㆍ(덕(가):1ㄴ)

2. 山僧ㄱ 昔年ㅋ 在衆ㄴㄱ 除二時粥飯ㅁㄱ 不曾上蒲團ㄴㄱ(심:26ㄴ)

(15) 1. 必須眞正ㄴㄱ 至於無心三昧(ㆍ)ㅣ/ㄴㄱㅣ 始得ㅣ/ㅌ(심.능.운(나)/외:45ㄱ)

3. 西峰ㄱ 敢道驢年ㅋ/ㅋㅣ 始得ㅣㄴㅢㆍ(심/운(나):25ㄴ)

(16) 兄弟家ㄴ 成十年二十年土泉 撥草瞻風ㄴㅁ(운(가):18ㄴ)

4. 구결토와 표기 특징

4.1. 조사 표기의 특징

조사 표기에서 한 가지 강조해 둘 것은 주격 조사 '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순독구결에서 주격 표기는 근대국어의 주격 조사 '-가'와 관계없이 한결같이 'ㄴ'로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격조사 'ㄴ'는 구결의 극단적 보수성을 보여 주는 특이한 예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속격 조사에는 'ㅋ'가 쓰였다. 그러나 '덕기사(가)본'에는 다음과 같이 'ㄷ'이 쓰인 예가 세 개 보여 예외적이라 할 만하다. 이 예는 선행어들로 미루어 존칭의 속격 표기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17) 1. 諷經次ㅋㄴ 擡頭ㄴㄱ 忽覩五祖演和尙ㄷ 眞ㄴㅁ(덕(가):2ㄴ)

2. 驀然觸發日前ㅋㄴ 仰山老和尙ㄷ 問施死屍,? 句子ㄴᄃᆡ(덕(가):2ㄴ)

3. 臨濟ㄴ 遭黃蘗ㄷ 六十痛棒ㄴㄱ(덕(가):29ㄱ)

조격 조사로는 'ㅈ' 외에 '…'(덕(가):4ㄴ)와 '…'(덕(나):2ㄱ)가 쓰인 예외적 용례도 보인다.[14] 그런데 'ㅈ' 대신 한자의 마지막 획이나 우측으

로 뻗은 획[15]에 'ㅅ'자를 기입한 특이한 방식의 가획형토[16]들이 주목된다. 이러한 가획형 구결은 조선 초기에 나타나 조선 후기까지 계속된 특징이나 별로 지적된 바 없다. 각 이본에 나타난 가획형 구결(편의상 해당 한자 옆에 아래첨자 'ㅅ'를 병기)의 용례는 (18)과 같다.[17]

(18) 故ㅅ(심.능.표.운(가).운(나):서1ㄴ, 외:5ㄴ), 來ㅅ(능.표:서2ㄱ, 운(가): 30ㄴ, 운(나):서2ㄱ), 路ㅅ(심:37ㄴ),
裏ㅅ(외:35ㄱ), 是ㅅ(운(나):21ㄴ), 外ㅅ(외:5ㄴ. 운(나):10ㄴ), 緣ㅅ(심:4ㄱ), 人ㅅ(능:2ㄱ, 표.운(가):서1ㄱ, 운(나):18ㄱ), 丈ㅅ(운(가):28ㄴ), 此ㅅ(운(가):2ㄴ), 孩ㅅ(능:14ㄴ), 拳ㅅ(심:46ㄴ, 능:46ㄱ)

이러한 표기 방식은 '덕기사(가)본'과 '덕기사(나)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용례가 여말·선초의 자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15세기 초기의 자료에서 나타나므로[18] 가획형구결은 15세기 중반 이후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9]

처격 조사로는 'ᄀᆞ/ᄒᆞᄂᆞ, ᄋᆞᄂᆞ, ᄀᆞ, ᅀᆞᄂᆞ' 등이 쓰였는데 선행체언의 말음절모음에 따라 엄격히 구별되지는 않았다. 대체로 단모음 다음에는 'ᄀᆞ, ᄒᆞᄂᆞ, ᄋᆞᄂᆞ, ᄀᆞ' 등이 그리고 중모음 다음에는 'ᅀᆞᄂᆞ'가 통합되

14) 자형이 불분명하지만 덕기사(나)본에 '乙ㅈ'(덕(나):3ㄴ)로 보이는 형태가 있다. 판독이 정확하다면 '乙ㅈ'를 추가할 수 있다.
15) 이에 해당하는 한자는 '路'와 '擧' 두 자이다.
16) 편의상 이를 '가획형토'로 지칭하고 '가획형구결'이라 부르기로 한다.
17) 한 자료 안에 동일가획형구결이 반복된 경우 출전은 하나씩만 제시하였음.
18) 한 예로 『묘법연화경』(1422년. 국립도서관본)에는 '界, 故, 變, 是, 珠, 嚴, 便' 등의 가획형토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 '故'가 60여 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다.
19) 예 (18)에 나타난 분포로 미루어 이러한 표기 방식은 17세기경에 상당히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萬曆34년(1606)년의 『都序』(禪源諸詮集都序)에는 '故, 敎, 來' 등의 예가 보이는데 '故'자의 경우 200여 회에 걸쳐 거의 가획형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었다. 'ㅋ'는 '덕기사(나)본'을 제외한 각 이본에 두루 쓰이고 있다. 'ㅋㅅ'는 '덕기사(가)본', '덕기사(나)본', '외빙발본' 등에 그리고 'ㅚㅅ'는 '덕기사(나)본', '운흥사(가)본'에만 나타나고 있다. 한편 'ㄱ'는 '운흥사(가)본', '운흥사(나)본', '표훈사본'에서만 나타나고 'ㅗㅅ'는 '덕기사(가)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 나타나고 있다. '덕기사(가)본'에서는 'ㅋ'와 'ㅋㅅ'가 혼용되고 유일하게 'ㅓ'가 한 번(於是ㅓ. 덕(가):3ㄱ) 나타난다.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덕(가)	덕(나)	심암	외발	능암	표훈	운(가)	훈(나)
ㅋ	○		○	○	○	○	○	○
ㅋㅅ	○	○		○				
ㅚㅅ		○					○	
ㄱ						○	○	○
ㅗㅅ		○	○	○	○	○	○	○
ㅓ	○							

이러한 표기 양상은 17세기 후반 이후 처격의 'ㅋ'와 'ㄱ'와 'ㅗㅅ' 등이 선행체언의 말음절 모음에 따라 달리 표기되어 갔음을 보여 준다.

처격 조사 'ㅋ/ㅋㅅ, ㅚㅅ, ㅗㅅ'는 'ㅋㄱ, ㅋㅁ, ㅋㄴ, ㅋㅣ, ㅋㅡ', 'ㅋㅅㅣ, ㅋㅅㄱ', 'ㅚㅅㄱ', 'ㅗㅅㄱ, ㅗㅅㅁ/ㅗㅅㅂ'와 같이 뒤에 다른 형태소가 부가되어 쓰인 예들이 있다. 그러나 'ㄱ'에는 이러한 결합형이 보이지 않는다.

공동격 조사 'ㅸ'와 'ㅏ'는 엄격한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외빙발본'에는 'ㅏ'만 나타나고 'ㅸ'는 보이지 않는다. 집단곡용 시 마지막에 온 'ㅏ/ㅸ'에 격조사가 통합된 결합형으로는 'ㅏㅅ'와 'ㅏㅈ'의 두 예가 보일 뿐 다른 격조사와 통합된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19) 1. 到者裏ㅅㄱㄱ 能擧所擧ㅏ 能疑所疑ㅏㅅ 雙忘雙泯ㅅㄱ(외.능.운

(나):45ㄱ)

2. 旣無餘疑ᅀㄱ 卽與釋迦彌勒淨名龐老ㅏㅈ 不增不減無二無別ㅅㄱ (심.표:22ㄱ)
3. 且道ㅅ、 與古人ㅏㅈ 是同ㅍ 是別ㅍ(외:38ㄱ)

호격 조사로는 일반적 호격의 'ㅍ'와 더불어 영탄의 호격에 'ㅗ'와 함께 'ㅣ', 'ㅲ', 'ㅅ'[20] 등이 사용되었다.

'ㅣ'는 석독구결에서 사용되고[21] 순독구결에서는 'ㅗ'로 교체된 것이다. 'ㅣ'는 (20.1), (21.1)과 같이 '덕기사(가)본'에만 나타나는데[22] 다른 자료에서는 'ㅈㅌカ、' 또는 'ㅍ、'로 나타나고 있다.

(20) 1. 般若妙用ㅅ 信不誣矣ㅣ 前所看無字ㄴ 將及三載ㅎ 除二時粥飯ㅁ (덕(가):3ㄱ)
2. 般若妙用ㅅ 信不誣矣ㅈㅌカ、 前所看無字ㄱ 將及三載ㅎ 除二時粥飯ㅅㅁ(심:3ㄴ)
3. 般若妙用ㅅ 信不誣矣ㅍ、/ㅍ、(능.운(가).운(나)/표:3ㄴ)

(21) 1. 一日ㅋㅅ 驀然踏著自家底ㅅㅌ 元來寸步不曾移ㅣ(덕(가):21ㄴ)
2. 一日ㅋ 驀然踏著自家底ㅅㅁ/ㅅㅌ 元來寸步不曾移ㅍ、/ㅈㅌカ、(덕(나):21ㄴ/심.외:26ㄴ)

'ㅲ'는 (22)와 같이 '외빙발본'에 한 번 쓰였고 다른 자료들에서는 모

20) 약간 자형이 불명하나 획의 상태로 보아 'ㅅ'에 가까워 'ㅅ'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자형의 구결자는 이것이 유일하고 다른 용례는 모두 'ㅗ'로 나타난다. 이로 보면 이 자형은 'ㅗ'자의 불안정한 형태로 판독할 수도 있다.

21) 'ㅣ'는 석독구결자료 중 화엄경소권35, 화엄경권14, 구역인왕경(상)에 사용되었다.

22) 이 외에 다음 예가 하나 더 있다. 그러나 이는 영탄의 호격으로 보기 어려워 생략하였다.
不待返覆思惟計較作意ㅅㄱㄱㅗ 纔有疑情ㅅㅈㅎ 稍稍成片ㅅㄱ 便無能爲之心ㅣ(덕(가):3ㄴ)

두 'ㅗ'로 나타난다.

(22) 1. 誠哉、 是言也ホ(외:10ㄱ)
2. 誠哉、 是言也ㅗ(덕(가):8ㄱ, 심.외.능.표.운(가).운(나):10ㄱ)

'ㄴ'자는 자형이 불안정하여 'ㅗ'와 거리가 멀고 'ㄴ'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23] 그러나 문맥상 호격의 '여'임이 확실하고 다른 이본들에서는 모두 'ㅗ'로 나타나고 있다. 잠정적으로 'ㄴ'로 판독한다.[24]

(23) 1. 我之不采ㄱ 無窮(?) 誠哉、 是言也ㄴ(덕(나):8ㄱ)
2. 我之不采ㄱ 無窮、ソコヒ 誠哉、/0 是言ㅗ(덕(가):8ㄱ, 외.능.운(나)/표.운(가):10ㄱ)

보조사 중 의문의 보조사 'ᄒᆞ'와 'ㅁ'는 대체로 판정의문과 설명의문에 대응되고 있다. 'ᄒᆞ'는 (24.1-3)에서와 같이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ㅍ'로 교체되었으나 (24.4)는 이러한 교체가 '외빙발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24) 1. 且道ソ、 與古人又 是同是別ㅍ(덕(가):30ㄴ)
2. 且道ソ、 與古人ノ 是同ᄒᆞ 是別ㅍ(심:38ㄱ)
3. 且道ソ、 與古人トヌ 是同ㅍ 是別ㅍ(외:38ㄱ)
4. 且道ソ、 與古人ノ/ト 是同0//ᄒᆞ是別ᄒᆞ(운(가).운(나)/표//능:38ㄱ)

---

23) 'ㅗ'로 보기에는 위 획이 너무 길고 약간 구부러졌으며 아래 획은 위 획 바로 아래에서 우측으로 짧게 그어져 있다.

24) 이 자형은 『구역인왕경』경에 세 용례가 보이고 남권희본 『능엄경』에도 쓰인 것으로 '如'의 첫 획(이승재 1995:340-341) 또는 '也'의 왼쪽 첫 획(백두현 1997:358)의 생획자로 판독되어 왔다.

의문보조사 '고'에는 'ㅁ'와 함께 (25)와 같이 'ᄒᆞ'가 쓰인 예도 보인다. 그러나 이런 예는 다음 두 예가 보일 뿐이다. 'ㅁ'가 다른 토와 결합된 복합토로는 'ㅁㅣㄹㅅㅅㄱ'(덕(가):37ㄱ), 'ㅁㅅㆍㅅㄱㄷㅣ'(덕(가):39ㄱ, 외.능.운(나):48ㄴ), 'ㅁㅅㄱㄹ'(심.외.능.표:46ㄱ), 'ㅁㅅㄹㅗᄉᆞ'(운(나):46ㄱ) 등이 있다.

(25) 1. 忽遇簸湯爐炭劒樹刀山ㅅㄱㄱ 未審 如何棲泊ᄒᆞ(외:14ㄴ)
2. 師云 你ㄱ 甚處ㅈ 見得ᄒᆞ(덕(가):1ㄴ)

보조사 '란'에 대응되는 'ㆍㄱ'과 'ㄴㆍㄱ'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ㆍㄱ'은 '덕기사(가)본'과 '외빙발본'에 세 예, 'ㄴㆍㄱ'은 '덕기사(가)본'에 한 예가 보일 뿐이다.

(26) 1. 有功者ㆍㄱ 賞ㅅㅁ 無功者ㆍㄱ 罰ㅅㅣㅂ(외:17ㄴ)
2. 進云 此事ㄱㆍ[25] 且止ㅇㅣㅏ(덕(가):1ㄴ)
3. 見聞ㄴㆍㄱ 卽且止ㅇㅣㅏ(덕(가):32ㄱ)

강세의 보조사로는 'ᄋᆞ'와 변화형 'ᄯᅩ'가 나타난다. 'ᄯᅩ'는 '운홍사(가)본'에 'ㅅᄯᅩ'(34ㄱ), '표훈사본'에 'ㅅㄱᄯᅩ'(46ㄱ)와 같은 예가 보인다. 'ᄋᆞ'는 처격조사 'ᄀᆞ/ᄀᆞㅅ'나 부동사형 'ㅅㄱ' 뒤에 부가되어 'ᄀᆞᄋᆞ/ᄀᆞㅅᄋᆞ, ㅅㄱᄋᆞ' 등으로 쓰였다. 그러나 '덕기사(가)본'과 '덕기사(나)본'에는 'ᄀᆞᄋᆞ/ᄀᆞㅅᄋᆞ'가 쓰인 예가 없다.

(27.1)과 (28.1)은 'ᄋᆞ'가 주격의 명사구에 통합된 예다. 그러나 이런 예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주격의 명사구에는 (27.3)과 같이 주제의 보조사 'ㄱ'이 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27.4)나 (28.2)와 같이 주격 조사 'ㅅ'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

25) 'ㆍㄱ'의 잘못으로 보임.

(27) 1. 似者般底ミ/ㅅミ 直饒弄到彌勒下生也ㅅㄱ月 有甚麽交涉可(덕(나):27ㄱ/외:34ㄱ)
2. 似者般底ㅅ也 直饒弄到彌勒下生也ㄱ月乙 有甚麽交涉ㅣ午(운(가):34ㄱ)
3. 似者般底ㄱ 直饒弄到彌勒下生也ㄱ月乙/ㅅㄱ月 有甚麽交涉ㅣ午(능.표/운(나):34ㄱ)
4. 似者般底ㅅ 直饒弄到彌勒下生也ㅅㄱ 有甚麽交涉ㅣ午(덕(가):27ㄱ)

(28) 1. 只此ㅅミ 便是得力底時節也ヒ丶(심:8ㄴ)
2. 只此ㅅ 便是得力底時節也丶/ㅅヒ丶(덕(가).외.능.표/운(가):8ㄴ)

'ミ'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에 부가되지만 (29), (30)과 같이 단독으로 쓰인 예도 있다. 이것은 동사구에 호응된 것이므로 '丶ミ, ㅅㄱミ, ㅅㄱ也' 등에 비추어 생략형이라 할 수 있다.

(29) 1. 必須眞正0/ㅅㄱ 至於無心三昧ミ 始得ㅣ(덕(가):36ㄴ/능.운(나):45ㄱ))
2. 必須眞正ㅅㄱ 至於無心三昧丶ミ/ㅅㄱミ/ㅅㄱ也 始得夕/ㅣ/ㅣ(심/외/표:45ㄱ)

(30) 1. 然雖如是ㅅ乃/乃 更須三十年ミ 始得ㅣ(덕(가).심.외/능.표.운(나):39ㄱ

4.2. 어미 표기의 특징

의문법 어미로 '-거니오'와 '-어뇨'에 대응하는 'ム ヒ午'와 'オ了'가 (31)과 같이 한 번씩 나타난다. 그리고 2인칭 의문법 어미 '-ㄴ다'에 대응하는 'ㄱ ㅣ/ㄱ 夕[26]'가 보인다. 그러나 '덕기사(가)본'과 '운홍사(가)본'

---

26) '夕'는 자형이 약간 뭉개져 불분명하나 구결자 '夕'가 오직 외빙발본에만 사용되었고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으므로 이를 '夕'로 판독하였다.
夕(25ㄱ), 尸ㅅ夕(48ㄴ), 又夕(10ㄴ), 又士ㅅ夕(1ㄴ), ノ刂ㅅ夕(45ㄴ), ㅅヒ夕(31ㄴ), ㅅ夕(21ㄴ), ㅅガ夕(46ㄱ), ㅅカ夕(23ㄴ)

에서는 (32.2)와 같이 'ㅎ'나 'ㅁ'로 나타난다. 의문법어미의 이본별 분포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31) 1. 一片白雲ㅅ 橫谷ㅁㅅㅂ 幾多歸鳥ㅅ 自迷巢ㅿㅂㅓ(덕(가):33ㄴ)
2. 一片白雲ㅅ 橫谷ㅁㅅㅂ 幾多歸鳥自迷巢ㅚㅣ(외:42ㄱ)

(32) 1. 師云 你(ㄱ) 甚處ㅋ/ㅈ 見得ㅅㄱㅣ/ㅅㄱㅌ(심.운(나).능.표/외:1ㄴ)
2. 師云 你ㄱ/0 甚處ㅈ/ㅈ 見得ㅎ/ㅁ(덕(가)/운(가):1ㄴ)

	덕(가)	덕(나)	심원	외빙	능인	표훈	운(가)	운(나)
ㄱㅣ			○		○	○		○
ㄱㅌ				○				
ㅿㅂㅓ	○							
ㅚㅣ				○				

감탄법어미로는 'ㄱㅁ, ㄱㆆ, ㄱㅅㅗ'와 'ㅿㆍ, ㅿㅅㆍ, ㅌㅅㆍ' 등이 사용되었다. 'ㄱㆆ'는 '덕기사(가)본'에, 'ㄱㅁ'는 '운흥사(가)본'에 한 예씩 사용되었다.

(33) 1. 堪嗟ㆍ 人ㅅ 不了ㅅㄱ 妄自執法爲病ㅅㄱ 以病ㅈ 攻病ㅅㄱ 致使佛性ㅈ 愈求愈遠ㅅㅈ 轉急轉遲ㅿㅅㅅㅈㄱㆆ(덕(가):15ㄱ)
2. 夫子云 夕死可矣ㆍㅅㅈ 顔回不改其樂ㅅㅈ 曾點舞詠而歸ㅅㅂ 咸佩此舞生眞空之樂也矣ㄱㅁ(운(가):22ㄴ)

(33.1)은 감탄사 '堪嗟'로 보아 문말에 감탄법어미가 호응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나머지 자료에서는 'ㅅㅂㅂ, ㅅㅂㅣ' 등이 통합되어 이러한 호응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33.2)의 'ㄱㅁ'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자료에서는 모두 설명법의 'ㅂㆍ'로 나타나 경전 해독 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여 준다.

'ㄱㅅㅗ'는 여말·선초의 자료에 쓰인 것인데[27] '덕기사(가)본'에 다음과 같이 두 예가 보인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서는 'ㅅㄹㄴㅣ、'(덕(나):11ㄱ) 또는 'ㅈㅣ'(심.외.능.표.운(가).운(나)) 등으로 대응되고 있다.

(34) 1. 殊不知(?) 有一所無盡寶藏ㅅ 蘊在其中ㅅㅗ(덕(가):11ㄱ)
2. 殊不知只者昏沈掉擧四字ㅅ 當体卽是佛性ㄱㅅㅗ(덕(가):15ㄱ)

감탄법어미 '-게라'에 대응하는 'ㅿㅅ、/ㅿ、, ㅌㅅ、'는 다음과 같이 일부 자료에 나타난다.

(35) 1. 然雖如是ㄱ 且道ㅅ、 忽遇鑊湯爐炭釰樹刀山ㅅㄱㄲ/ㅅㄱㄱ 未審ㅿㅅ、(덕(가):11ㄴ/심:14ㄱ)
2. 然雖如是ㄱ 且道ㅅ、 忽遇鑊湯爐炭釰樹刀山ㅅㄱㄱ 未審ㅿ、/ㅿ、(능/표:14ㄱ)
3. 然雖如是ㅋ 且道ㅅ、 忽遇鑊湯爐炭釰樹刀山ㅅㄱㄱ 未審ㅌ、(운(가):14ㄱ)

감동법의 '-돗/롯-'에 대응하는 'ㄲㅌ/ㅈㅌ'과 '-로소이다, -로ᄉᆞ이다'에 대응하는 'ㅈㄷㅅㅣ, ㅈㅅㅅㅣ/ㅈㅅㅅㅿ' 등의 예가 몇 개 보인다. (36.4)의 'ㅈㅅ'와 (36.6)의 'ㄲㅅ'는 'ㅈㄷ'와 'ㄲㄷ'로 동화되기 전의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17세기 말의 자료에까지 쓰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36) 1. 只爲不在疑情上ㅋ/0 做工夫ㅈㅌㅋ、(심/운(나):3ㄴ)
2. 只爲不在疑情上ㅅㄱ 做工夫ㅅㄲㅌㄱ、(능:3ㄴ)
3. 進云 恁麽則言言(ㅋㅅ) 見諦? 句句(ㅅ) 朝宗ㅈㄷㅅㅣ(덕(가).표.운(가):1ㄴ)

---

27) 기람사본 『능엄경』에는 'ㅅㄱㅎㅗ, 'ㅅㄱㅅㅗ ' 등의 다양한 예가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는 한상화(1994) 참조.

4. 進云 恁麽則言言ㅅ 見諦ᄒᆞ 句句ㅅ 朝宗ᄋᆞᄉᆞㅣ/ᄋᆞᄉᆞㅅᄉᆞᆼ(심.운(나)/외:1ㄴ)
5. 問平常心ㅅ 是道ᄒᆞ 無心ㅅ 是道ᄒᆞᄉᆞᄀᆞᄆᆞᄒᆞ(심:43ㄴ)
6. 問平常心ㅅ 是道ᄒᆞ 無心ㅅ 是道ᄒᆞᄉᆞᄀᆞᄉᆞᄒᆞ(외:43ㄴ)

이상 위에서 살펴본 감탄법 어미의 이본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덕(가)	덕(나)	심원	외빙	능인	표훈	운(가)	운(나)
ㄱᄀᆞ	○							
ㄱᄃᆞ							○	
ᄎᆞᄉᆞ	○		○					
ᄎᆞ/ᄎᆞ					○	○		
ᄐᆞ							○	
ᄉᆞᄀᆞᄐᆞᄀᆞ					○			
ᄋᆞᄐᆞᄀᆞ			○					○
ᄋᆞᄆᆞᄉᆞㅣ	○					○	○	
ᄋᆞᄐᆞᄉᆞㅣ(ㅿ)			○	○				○
ᄉᆞᄀᆞᄆᆞᄒᆞ			○					
ᄉᆞᄀᆞᄐᆞᄒᆞ				○				

양보의 부동사형 어미로는 'ᄀᆞᆷᄀᆞ/ᄀᆞᆫᄀᆞ'과 'ᄀᆞㅅ/ᄀᆞᄅᆞ(乙)'이 사용되었다. 'ᄀᆞᆷᄀᆞ'과 'ᄀᆞᆫᄀᆞ'은 '-마ᄅᆞᆫ/마ᄂᆞᆫ'에 대응된다. 'ᄀᆞᆷᄀᆞ/ᄀᆞᆫᄀᆞ'이 다른 형태와 통합된 결합형은 (37)과 같고 자료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37) 1. ᄎᆞᄂᆞᄀᆞᄀᆞᆷᄀᆞ(능:서2ㄱ)/ᄋᆞᄂᆞᄀᆞᆷᄀᆞ(덕(나):서2ㄱ)
2. ᄋᆞᄀᆞᄀᆞᆷᄀᆞ(심:32ㄴ, 능:서1ㄴ, 표.운(나):27ㄱ)/ᄋᆞᄀᆞᄀᆞᆷᄀᆞ(운(가):발4ㄱ)/ᄋᆞᄀᆞᄀᆞᆷ(운(가):32ㄴ, 운(나):서1ㄴ)
3. ᄋᆞᄀᆞᄀᆞᆫᄀᆞ(덕(가):26ㄱ, 심.외:27ㄱ)
4. ᄉᆞᄉᆞᄐᆞᄀᆞᄀᆞᆫᄀᆞ(심:45ㄴ)

	덕(가)	덕(가)	심원	외빙	능인	표훈	운(가)	운(가)
万ㄱ		○	○		○	○		○
万							○	
广ㄱ	○		○	○				

위에 나타난 표기 양상으로 보면 16세기까지는 '万ㄱ'과 '广ㄱ'이 혼용되다가 17세기 이후에는 '万ㄱ'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

조건의 부동사어미로는 'ㅜ, ㅿㅗ(ㄱ)·ㅿㅅ, ㅇㅅ(ㄱ)·ㅇㅗ·ㅇㅅㄱ, (ㄱ)大·(ㄱ)大ㄱ, ㆍㄱ大·ㆍㄱㅁ' 등이 쓰였다. 이 중 'ㄱ大'는 'ㄱ'이 생략된 '大'와 함께 활발히 사용되었다. 이들 어미의 분포 양상은 'ㅜ'보다 'ㅿㅅ/ㅇㅅ'류와 'ㄱ大'류가 널리 나타난다. 형태별 출전은 (38)과 같고 이본별 출현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38) 1. ㅜ(심.능.운(나):4ㄴ, 외:14ㄱ, 표:2ㄱ, 운(가):1ㄴ)
2. ㅿㅅ(덕(가):30ㄱ, 덕(나):6ㄱ)/ㅿㅗ(표:7ㄴ), ㅿㅗㄱ(덕(나):33ㄴ)
3. ㅿㄱ大(운(나):28ㄴ)/ㅿ大(운(가):28ㄴ)
4. ㄱ大(덕(가):6ㄴ, 덕(나).심.표:2ㄱ, 능:1ㄴ, 운(가):8ㄱ, 운(나):19ㄴ)/大(덕(가).덕(나).심:2ㄱ, 외:14ㄴ, 표:1ㄴ, 운(가):5ㄱ, 운(나):2ㄴ)
5. ㄱ大ㄱ(능:44ㄱ, 덕(가):4ㄴ, 심:2ㄴ)/大ㄱ(덕(가).운(나).심:1ㄴ, 덕(나):9ㄴ, 외:2ㄱ, 능:24ㄱ, 운(가):2ㄴ)
6. ㅇㅅ(덕(가):14ㄱ, 덕(나):27ㄱ)/ㅇㅅㄱ(능:32ㄴ, 심:4ㄱ, 운(가).운(나):7ㄴ)/ㅇㅗ(표:16ㄴ, 외:32ㄴ)/ㅇㅅㄱ(능:7ㄴ)
7. ㆍㄱ大(<운(나):35ㄱ, 표:4ㄴ, 능:35ㄱ, 심:17ㄴ)/ㆍㄱㅁ(심:28ㄱ, 표:36ㄴ)
ㅅㆍㄱ大(능:17ㄴ, 덕(가):4ㄱ, 심.운(나):4ㄴ, 외:28ㄱ)/ㅅㆍ大(심.외:35ㄱ)/ㅅㆍㄱ大ㄱ(덕(가):21ㄱ, 심:17ㄴ)

이 중 (38.1)의 'ㅜ'은 '덕기사(가)본'과 덕기사(나)본에서는 전연 그 용례

가 보이지 않는다. (38.2)의 '-거든'에 대응하는 형태는 '덕기사(가).(나)본'과 '표훈사본'에, (38.3)의 'ᄉᆞᄀᆞ大'는 '운흥사(가)본'과 '운흥사(나)'에서만 나타나 이본별로 심한 차이를 보인다. '능인암본'에는 '-ㄴ대'에 대응하는 'ᄀᆞ大'만 쓰이고 생략형 '大'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외빙발본'에서는 '大'로만 나타나고 'ᄀᆞ大'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덕기사(나)본'과 '운흥사(가)본'에서는 'ㆍᄀᆞ大/ㆍᄀᆞᆷ'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의 이본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덕(가)	덕(나)	심원	외빙	능인	표훈	운(가)	운(나)
ᄀᆞ			○	○	○	○	○	○
ᄉᆞᄉᆞ	○	○						
ᄉᆞᄒᆞ						○		
ᄉᆞᄒᆞᄀᆞ		○						
ᄉᆞᄀᆞ大								○
ᄉᆞ大							○	
ᄀᆞ大	○	○	○		○	○	○	○
大	○	○	○	○		○	○	○
ᄀᆞ大ᄀᆞ	○		○		○			
大ᄀᆞ	○	○	○	○	○		○	○
ᄋᆞᄉᆞ	○	○						
ᄋᆞᄉᆞᄀᆞ			○		○		○	○
ᄋᆞᄒᆞ				○		○		
ᄉᆞᄉᆞᄀᆞ					○			
ㆍᄀᆞ大			○		○	○		○
ㆍᄀᆞᆷ			○		○	○		○
ᄉᆞㆍᄀᆞᆷ	○		○	○	○			○
ᄉᆞㆍ大			○	○				
ᄉᆞㆍᄀ大ᄀ	○		○					

『禪要』에는 (39.1)과 같이 '況'으로 시작되는 구문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중세국어의 '…-곤/온 ᄒᆞ물며……의문형'의 구성과 일치한다. 그러나 일부 자료에서는 (39.2)와 같이 'ㅓㅌ/ㅺㅌ'[28]로 나타나 '-곤/온'이 15세기 문헌에서 대개 '-거니'로 바뀐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39.3)은 '況' 대신 의문사로 '爭'이 온 예다.

(39) 1. 現前學般若菩薩 ... 得得來見西峰ᄒᆞᄀᆞ 況兼各各然指然香ㅅᄉᆞ ...
辨鐵石志ㅂᆞᆫ/ㅂᆞᆯㅌᆞᆫ/ㅓㅌㅂᆞᆫ(심/표/능.운(나):4ㄴ)
2. 世間所有之物乙 悉皆投至ㅅᄀᆞᆨ 猶如片雪ㅅᄀᆞ 點著ᄒᆞ 便消ㅓㅌ/ㅺㅌ 爭容毫末ㅣᄒᆞ(덕(나):10ㄱ/능.표.운(가):13ㄱ)
3. 世間所有之物乙 悉皆投至ㆍᆨ 猶如片雪ㅅ 點著便消ᄒᆞᄀᆞ 爭容毫末ㅣᄒᆞ(심.능.표.운(가):13ㄱ)

명령법어미로는 '-ㆍ'와 '-小ㅡ'의 두 형태가 사용되었다. '-ㆍ'는 'ㅅㆍ'의 형태로 두루 나타나지만 '-小ㅡ'는 각 이본에 (40)과 같이 한 번씩 나타나고 있다.

(40) 如上所供ᄀᆞ 並是詣實ㅌ 伏望ㅅᄋᆞᄀᆞ入 尊慈特垂詳覽ㅅ小ㅡ(덕(가).덕(나):39ㄴ, 심.외.능.표.운(가).운(나):49ㄱ)

원인·조건의 어미로 'ㅁᆞᄀᆞ大'와 'ㅏᄀᆞㅁ, ㅏᄋᆞ' 등이 보인다. 'ㅏᄋᆞ'는 'ㅏᄀᆞᄋᆞ'의 'ㄱ' 생략형이다. (41)의 'ㅁᆞᄀᆞ大'와 'ㅏᄀᆞㅁ, ㅏᄋᆞ'는 의문사가 선행하는 15세기 국어의 '-곤대, -완ᄃᆡ'와 의미기능이 일치한다. 이 글은 "고봉, 고봉아! 너는 무슨 잘난 데가 있어 이와 같이 큰 입을 여는가?"로 풀이된다.

---

28) '덕(가)본'의 토는 'ㅳㅌㅅㅣㅌ'같이 보이나 끝의 'ㅣㅌ'가 분명치 않고, '외빙발본'은 11-13장이 낙장이므로 용례를 볼 수 없다.

(41) 1. 高峰高峰ㅍ 你 有甚長處ㅁㄱ大 開得者般大口ᄒᆞᆫ入(덕(가):33ㄴ)
2. 高峰高峰ㅍ 你ㄱ 有甚長處ㅏㄱㅁ/ㅏᄉ 開得者般大口ᄒᆞᄂᆞᆫ(능.심.외.운(나).표/운(가):41ㄴ)

긍정대상의 어미 '-디위'에 대응하는 형태로 '-ㅗ位'(외:16ㄴ)와 'ㅗᄂᆞ'(운(가):4ㄱ)가 보인다.[29] (42.1)과 (43.1)의 'ㅗ位'와 'ㅗᄂᆞ'는 후행구에 '莫', '未' 등의 부정어가 와 15세기 국어의 '-디위'와 의미기능이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이 둘뿐으로 다른 자료들에서는 (42.2)의 'ㅓㄱㅜ', (43.2)의 'ᄒᆞ, ㅁ, (ㅅ)ㆍ' 등과 같이 다른 어미로 나타나 이들의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42) 1. 便當便好ᄂᆞㄱ 乘時直入ㅗ位 莫待臨嫁醫瘿ㅌㆍ(외:16ㄴ)
2. 便當便好ᄂᆞㄱ 乘時直入ㅓㄱㅜ 莫待臨嫁醫瘿ㅌㆍ(능.표.운(가).운(나):16ㄴ)

(43) 1. 設使下得手ㆍㄲ 疑得去ㅅ 只頃刻間ㅗᄂᆞ 又未免被昏散ᄒᆞ 打作兩橛ㅌ(운(가):4ㄱ)
2. 設使下得手ᄂᆞᄉᆞ 疑得去ㆍㄲ 只頃刻間ᄒᆞ/ㅁ/(ㅅ)ㆍ(덕(나):3ㄱ, 표.심/운(나)/외.능:4ㄱ)

선어말어미로 1인칭 주어 확인법의 '-과-'에 대응되는 '-果/ᄒᆞ-'가 보인다. '-果ㆍ, -ᄒᆞㅅㅣ'는 15세기의 '-과라, -과이다'에 대응되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ㆍᄂᆞᄉᆞ'(능:37ㄱ), 'ㆍᄂᆞᄉᆞ'(운(가).운(나):37ㄱ), 'ᄂᆞㄱㅅㅣᄂᆞᄉᆞ'(덕(가):30ㄱ) 등으로 대응되고 있다.

(44) 1. 水潦和尙ㅅ ...呵呵大笑云ㄴㅁ 百千法門0/ᄒᆞ 無量妙義ㄹ 摠向一毫

29) 이 토는 '파전본 능엄경'(15세기초)에 처음 등장한 것(남경란 2001:104)으로 『육조법보단경』(1479)에도 한 예가 보이는 등 순독구결 자료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頭上ㅅㄱ 識得根源去果ㆍㅅㄱ/ホㆍㅅㄱ(외/표:37ㄱ)

2. 水潦和尙ㄴ ...呵呵大笑云0/ノム 百千法門0/ホ 無量妙義ㄹ 摠向一毫頭上ㅅㄱ/ㅋ 識得根源去ホㄴㅣ/ホㄴㅣㅅㄱ(덕(나):30ㄱ/시:37ㄱ)

선어말어미 '-더-'의 표기 중 (45)의 'ㅅㅅㄴㅣ와 'ㅅㅅㄴㅣ'는 여말·선초에 '-더-'의 선대형 '-드-'의 표기에 쓰였던 'ㅅ'(남풍현 1987)를 보여준다. 'ㅅ'는 '덕기사(가)본'에서만 여섯 예가 보일 뿐 같은 판본의 '덕기사(나)본'에서는 'ㄱ'로 나타난다.

(45) 1. 與你ㅈ 拖者死屍來 聲未絶ㅋㄴ 便以痛拳 打出ㅅㅅㄴㅣ(덕(가):37ㄴ)

2. 令參箇生從何來死從何去ㅅㄴㅌ 意分兩路ㅅㄱ 心不歸一ㅅㅅㄴㅣ(덕(가):37ㄱ)[30]

'...할 듯하-'에 대응하는 형태는 '덕기사(가)본'에서는 'ㅗㅊㅅㅌㆍ, ㅗㅊㅅㅣㅌ, ㅗㅊㅅㅌ, ㅗㅊㅅㅅ, ㅗㅊㅅㄱ' 등 모두 'ㅗㅊㅅ-'로 나타나고[31] '외빙발본'에도 'ㅗㅊㅅㅣㅌ'(외:8ㄴ), 'ㅗㅊㅅㄱ'(외:6ㄴ)와 같은 두 예가 보이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구결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자료 외에서는 모두 '月ㅊㅅ-'로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외빙발본'에는 위와 같은 두 예가 보이고 '月ㅊㅅ-'와 같은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두 용례에 불과하나 'ㅅㅅㅈ'가 쓰인 예도 눈에 띈다. 'ㅅㅅㅈ'는 여말 이후의 자료에 간혹 나타나는 것인데 '덕기사(가)본'과 '외빙발본'에 한 예씩 나타나고 나머지 자료에서는 'ㅋ, ㄱ, ㅅㄱ, ㅅㄱㄱ' 등으로 대응되고 있다.

---

30) 이 외에 'ㅅㅅㄴㅣ'의 예로는 '相似ㅅㅅㄴㅣ'(:37ㄱ), '有些涯際ㅅㅅㄴㅣ'(:37ㄴ), '相似ㅅㅅㄴㅣ'(:38ㄴ), '跳出ㅅㅅㄴㅣ'(:39ㄱ) 등의 예가 더 있다.

31) '덕(가)본'에 쓰인 예는 모두 24회이다.

(46) 1. 不待返覆思惟計較作意ᄂᆞᄀᆞᆨ ᄯᅩ 纔有疑情ᄂᆞᄉᆞᄒᆞ 稍稍成片ᄂᆞᄀ 便無能爲之心ᄉᆞ(덕(가):3ㄴ)
2. 不待返覆思惟計較作意ᄂᆞᄀᆞᄀᆞᆷ 纔有疑情ᄂᆞᄉᆞᄒᆞ 稍稍成片ᄂᆞᄀ 便無能爲之心ᄂᆞᄉᆞ(외:4ㄱ)

(47.1)은 'ᄒᆞ'가 '從…至…' 구문[32]에, (47.2-3)은 동사 '至'나 '及'이 내포된 동사구에 통합된 예다. 이와 달리 (48)의 '廓然ᄒᆞ'는 'ᄒᆞ'가 부사 파생접사로 쓰인 예다. 그러나 이런 예는 이 외에는 보이지 않아 'ᄒᆞ'의 파생접사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至'나 '及'에 어미적 기능의 'ᄒᆞ'가 반드시 호응하였던 것은 아니다. (49.1-2)에서와 같이 경문 독법에 따라 'ᄒᆞ' 또는 'ᄂᆞᆷ'가 통합되어 차이를 보인다.

(47) 1. 從暮至朝ᄒᆞ 千思想萬思量ᄒᆞᄂᆞ 單單只是箇求出之心ᄒᆞ(덕(가)심:14ㄴ)
2. 前所看無字ㄴ 將及三載ᄒᆞ 除二時粥飯ㅁ 不曾上蒲團ᄂᆞᄉᆞ(덕(가):3ㄱ)
3. 或三十年 二十年ᄋᆞ 以至一生ᄒᆞ 終無他念ᄂᆞᄀ 踏得實實落落ᄂᆞᄉᆞ)(외:15ㄴ)

(48) 回光返照ᄂᆞᄀ 直下知非ᄂᆞᄀ 廓然ᄒᆞ 樂病ㄹ 兩忘ᄂᆞㅁ(심:18ㄴ)

(49) 1. 心心無間ᄂᆞᄀ 如是經及三載ᄒᆞ 曾無一念懈怠心ᄂᆞᄉᆞᄒᆡ(외:26ㄴ)
2. 心心無間ᄂᆞᄀ 如是經及三載ᄂᆞᆷ 曾無一念懈怠心ᄂᆞᄉᆞᄒᆡ/ᄂᆞᆞ/ᄉᆞᄒᆡ(덕(가):21ㄴ/심.능.표.운(나)/운(가)):26ㄴ)

동명사어미로는 'ᄂᆞᄂᆞ(심.능,운(나):3ㄱ, 운(가):서1ㄱ, 표:4ㄱ), ᄂᆞᄉᆞᄂᆞ(심.운(나).능:35ㄴ), ᄂᆞᄉᆞ未(외:35ㄴ)'와 같이 동명사어미 '-ㅁ'과 주격조사 '-이'가 통합되거나, 'ᄂᆞ勿ᄋᆞ(심:27ㄱ)/ᄂᆞᄂᆞ勿ᄋᆞ(심:33ㄴ)'나 'ᄂᆞ勿ㄴ(표:16ㄴ)'과 같이 조격 조사 'ᄋᆞ'나 목적격조사 'ㄹ'이 그리고 'ᄂᆞᄉᆞᄒᆞㅁ

32) 『禪要』에는 '從…至…' 구문만 보이는데 '從朝至暮' 4회, '從暮至朝' 1회로 다섯 예가 보인다.

(덕(나).표:21ㄱ), ㅅㅅ홇刀(심:21ㄱ, 외:36ㄱ), ㅅㅅ홇斗(심:35ㄴ)'와 같이 동명사에 보조사 'ㄱ'나 '斗'가 통합된 예가 보인다. 이들의 이본별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덕(가)	덕(나)	심원	외빙	능인	표훈	운(가)	운(나)
ㅅㅅ			○		○	○	○	○
ㅅㅅㅅ			○		○			○
ㅅㅅ未				○				
ㅅ勿又			○					
ㅅ勿し						○		
ㅅㅅ立刀		○				○		
ㅅㅅ홇刀			○	○				
ㅅㅅ홇斗			○					

그런데 '덕기사(가)본'에 다음과 같이 동명사 'ㄱ'이 쓰인 예가 두 개 보인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표기법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50.1)의 'ㅅし'은 '... 성공하게 됨을 결단코 의심할 것이 없을 것이니...'의 의미로 보아 'ㅅㄱし'(덕(가):37)의 'ㄱ'이 생략된 것이다.

(50) 1. 諸上座ㅅ 果能如是知非ㅅ久 果能如是着鞭ㅅ尸 剋日成功ㅅし 斷無疑矣ㅋㅂ 勉之勉之ㅇㅣ(덕(가):15ㄴ)
2. 次日ㅋㅅ 粥罷ㅁ 復上ㅅㄱㅎ 始得親近ㅅㄱし 卽問已前做處ㅈㄴし(덕(가):37ㄱ)

한자어 '大抵'에 통합된 'ㅅㄱㅈ'(덕(가).심:3ㄱ, 덕(나):6ㄴ, 외:29ㄴ, 표:44ㄱ, 운(나):20ㄱ)나 'ㅅㄱㅈ'(덕(가):35ㄴ, 외:44ㄱ)는 '운흥사(가)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 용례가 보인다. 단, '능인암본'에서는 'ㅅㅈ'(능:20ㄱ)과 같이 'ㄱ'이 생략된 형태로 나타난다.

(51) 1. 大抵ㅅㄱㅗ 學人ㅅ 打頭ㅣ 不遇本分作家ㅅㄱㅎㅈ(외:29ㄴ)
2. 大抵ㅅㄱㅗ 要見古人立地處ㄱ大/大 不可向語句上ㅈ 著到ㅌ·/ㅅㅌ(덕(가):35ㄴ/외:44ㄱ)

'如'자를 중심으로 한 비유 구문은 '... ㅅㅅ 如... (ㅅ)-' 와 '...ㅅ 如... (ㅅ)-' 형식이 반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ㅅ 如... (ㅅ)-' 표현과 산발적으로 보이는 '...ㅅㄱ 如... (ㅅ)-', '...ㅅㅁ 如... (ㅅ)-' 구문은 15세기 국어의 '... 호미 ...ᄐᆞ-/ㅣ로다' 구성과 일치한다. '如'의 선행구에 통합된 구결의 이본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덕(가)	덕(나)	심원	외빙	능인	표훈	운(가)	운(나)
ㅅㄱㅗ	○	○	○					
ㅅㅅ			○		○	○		○
ㅅ			○	○		○	○	
ㅅㄱ		○		○			○	
ㅅㅁ	○							

이 비유 구문은 앞선 시기에는 '...ㅅㄱㅗ 如...ㅗㅌㅅ-'로 표현되었던 것인데 '덕기사(가)본', '덕기사(나)본', '심원사본'에만 'ㅅㄱㅗ'가 한두 번씩 나온다. 그러나 후행구에 통합된 토는 (52)와 같이 'ㅅ-'로 'ㅗㅌㅅ-'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본별 표기 양상으로 미루어 'ㅅㅅ'는 16세기 중엽 이후 'ㅅ'와 공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2) 1. 當時ㅣㅅ 便覺四大輕安ㅅㄱㅗ 如放下百二十斤一條檐子相似ㅅ·(덕(가):6ㄴ).
2. 境寂人忘ㅅㄱㅗ 如癡如兀ㅅㄱ(심:3ㄱ)

5. 결론

이상 15세기초에서 17세기 후반의 구결을 보여 주는 『禪要』8권에 나타난 구결의 문자 체계와 구결의 표기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禪要』는 1399년 덕기사에서 처음 복각한 이래 1731년까지 34회에 걸쳐 개판되었고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어 이 시기의 구결을 집약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이 중 '덕기사본'을 비롯한 이본 6종 8권의 구결을 비교·고찰하였다.

『禪要』에 기입된 토는 모두 560개인데 이본에 따라 200개 내외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외빙발본'을 경계로 그 수가 현격히 적어져 이 시기를 경계로 이만큼 구결 표기가 정제되고 구결 형태가 단순화되어 갔음을 보여 준다.

이본별 사용 구결자는 50자 내외로 이를 종합하면 자형상 87개에 이른다. 이들은 조선 중기 이후의 구결자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조사 표기의 특징으로는 조격 조사로는 'ㄨ'와 더불어 한자의 우측 획에 'ノ'자를 기입한 가획형토들이 일반화되었음이 주목된다. 처격 조사 'ᄋᆞ/ᄋᆞᄂᆞ, ᄒᆞᄂᆞ, ᄀᆞ, ㅡᄂᆞ' 등은 자료에 따라 사용 양상이 달랐으나 17세기 후반 이후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표기되어 갔음을 보여 준다. 호격 조사로는 일반적 호격의 'ㅁ'와 더불어 영탄의 호격에 'ㅡ'와 함께 'ᄉᆞ', '亦', 'ㄴ' 등이 사용되었다. 'ᄉᆞ'와 'ㄴ'의 출현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보조사 중 주제의 보조사 'ᄋᆞㄱ'과 'ㄴᆞㄱ'은 서너 개의 예가 보일 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어미 중 의문법 어미로 'ㅿㅌㅜ'와 'ᄒᆞᆫ', 2인칭 의문법 어미 'ㄱㅣ'가 보인다. 감탄법어미로는 'ㄱ氐, ㄱ宁, ㄱㅅㅡ'와 'ㅿᆞ, ㅿᄂᆞᆞ, 巨ᄂᆞᆞ'가 나타나고, 감동법의 'ㄲㄴ/又ㄴ'과 '又尸ᄂᆞㅣ, 又ㅗᄂᆞㅣ' 등이 보인다. 양보의 부동사형어미로는 '万ㄱ'과 '广ㄱ'은 혼용되다가 17세기 이

후에는 '万ㄱ'으로 단일화되었다. 조건의 부동사어미로는 'ㅓ, ㅿ호/ㅿㅅ, (ㄱ)大/(ㄱ)大(ㄱ), ㆍㄱㅁ' 등이 쓰이고 자료별로 심한 분포의 차이를 보인다. 수사의문문 앞에 오는 '-곤/온'에 대응하는 구결토로 'ᄒᆞㄱ'이 보이나 자료에 따라 'ㅇㅣ/ᄉᆞㅣ'로 교체되어 있다. 원인·조건의 어미 '-곤대', '-완덕'에 대응되는 구결토로 'ㅁㄱ大'와 'ㅏㄱ大, ㅏㄱㅁ, ㅏᄃᆞ' 등이 보인다. 긍정대상의 어미 '-디위'에 대응하는 'ㅿ位', 'ㅿㅅ'도 두어 예가 보인다. 두 용례에 불과하나 'ㅅㅈᄃᆞ'가 15세기 중엽에도 쓰인 예를 보여 준다.

선어말어미로는 1인칭 주어에 대한 확인법의 '-果/ㅎ-'와 함께 과거시제의 '-더-'의 선대형 '-드-'에 대응되는 'ㅅ'가 일부 나타난다.

동명사어미로는 'ㅅㅅ'류, 'ㅅ勿-'류, 'ㅅㅅᄒᆞᆷ'류 등이 보이고 동명사 'ㄱ'이 쓰인 예로 'ㅅㄱㄴ'도 보인다.

'如'자를 중심으로 한 비유 구문은 '... ㅅㅅ 如... (ㅅ)-'와 '...ㅅ 如... (ㅅ)-' 형식이 반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별 분포로 보아 'ㅅㅅ'는 16세기 중엽 이후 'ㅅ'와 공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金斗燦(1996), 「口訣語尾 'ㅅㅈᄃᆞ'에 대하여」, 『口訣硏究』 1, 口訣學會, 45-68.
김선영(1997), 「高峰和尙禪要 板本考」, 『書誌學硏究』 14, 書誌學會, 161-212.
金聖洙(1994), 「韓國佛典 四集의 成立에 관한 書誌的 硏究」, 『文獻情報學論叢』, 서울:九美貿易, 1096-1022.
고정의(2005), 「『近思錄』의 구결 연구」, 『口訣硏究』 14, 口訣學會, 5-49.
남경란(2001), 「능엄경의 음독 입겾 연구」, 대구가톨릭대 박사학위 논문.
남경란(2002), 「<불설사십이장경> 입겾의 이본에 대하여」, 『語文學』 75, 語文學會, 143-170.
南權熙(1999), 「朝鮮 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硏究」, 『書誌學硏究』 18, 書誌學會, 445-508.
南豊鉉(1987), 「中世國語의 過去時制語尾 '-드-'에 대하여」, 『口訣硏究』 16,

口訣學會, 55-63.
南豊鉉(1990),「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硏究-楞嚴經 記入吐의 表記法을 중심으로」,『震檀學報』69, 75-101.
南豊鉉(1995)「朴東燮本 楞嚴經의 解題」口訣 資料 叢書1『高麗 時代 楞嚴經』, 太學社.
南豊鉉(1999)『國語史를 위한 口訣硏究』, 太學社.
박부자(2000),「정문연본『永嘉證道歌』의 구결에 대하여」,『口訣硏究』6, 口訣學會, 135-172.
박진호(1996),「奎章閣 所藏 口訣資料『楞嚴經』2種에 대하여」,『口訣硏究』1, 口訣學會, 73-94.
백두현(1997c),「高麗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太學社, 287-384.
安秉禧(1976c),「中世語의 口訣 記寫 資料에 대하여」,『奎章閣』1, 서울대 圖書館, 51-65.
安秉禧(1977),『中世國語 口訣의 硏究』, 一志社.
안병희·이광호(1990),『中世國語 文法論』, 學硏社.
李丞宰(1993ㄴ),「麗末鮮初의 口訣資料」,『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 지성사, 56-76.
이승희(1996),「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전경(2001),「15세기 구결표기법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윤희(1997),『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國語學叢書 41, 國語學會.
장윤희(2001)「『高峰和尙禪要』해설」,『奎章閣所藏 語文學資料』, 서울대학교 奎章閣, 31-32.
한상화(1994),「祇林寺本『楞嚴經』口訣의 硏究, 성심여대 석사학위논문.
황선엽(1996),「一簑文庫本『大方廣圓覺略疏注經』」,『口訣硏究』1, 口訣學會, 95-126.

〔136-042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가 221번지〕
E-mail: Jungeuiko@hanmail.net.
접수일자: 2005. 12. 10.
게재결정: 2006. 01. 25.

『高峰和尙禪要』の口訣 研究

高正儀

本稿では、高麗末期に伝來され、禪宗の必讀書になった『高峰和尙禪要』(以下『禪要』と略する)の異本の中で15世紀から17世紀の口訣が見られる異本6種8卷に現れる文字体系と口訣の表記を檢討し、その口訣の目錄をまとめる。『禪要』は1399年德奇寺ではじめて夏刻された以來1731年まで34回も改版されたし、16・17世紀に集中的に刊行されたため、この時期の口訣をまとめてみることのできる重要な資料である。

『禪要』の文字体系と口訣の表記の様相は朝鮮中期の仏教経典のそれとほとんど同じである。それぞれの異本に使われた口訣字は88字で、その中には、'ᄴ/ᄽ, ᄉ, ᅔ'などの古形も含まれている。それぞれの異本に使われた口訣吐は560個で、異本ごとに200個程度である。ところが'外氷鉢本(1536)'からはその數が格段に減って、このときに口訣の表記が整齊され、單純化されたことがわかる。

口訣吐の表記特徵を助詞と語尾に分けて異本別に檢討してみると次のようである。

助詞の表記で特徵的な現象は造格に'ㄨ'とともに漢字の右側劃に'ノ'字を記入した加劃形吐が一般化されたことである。處格助詞は17世紀後半以後、音韻論的環境によって表記されていたことを見せる。

終結語尾の中で重要な形態は疑問法語尾'ㅿㅣㅎ, ㅇㅣ'と2人称疑問法の'ㄱㅣ'、感歎法の'ㄲㅣ/ㄨㅣ'と'ㄨㅁㄴㅣ, ㄨㅅㄴㅣ'などがある。

副動詞語尾の中で讓歩の語尾 'ᄒᆞᆫ'と 'ᄒᆞᆫᄃᆡ'は混用されたが、17世紀になって 'ᄒᆞᆫ'に合流された。 原因・條件の副動詞語尾 'ᄆᆞᄎᆞᆫ', 'ᄐᆞᄎᆞᆫ/ᄐᆞᄎᆞᆷ'は中世韓國語の'-곤대, -관ᄃᆡ/완ᄃᆡ'と意味機能が一致する。肯定對象の語尾 '-ᄃᆡ위'に對応する 'ᄉᆞ位/ᄉᆞᄉᆞ'と高麗末朝鮮初期の資料に現われる 'ᄉᆞᄉᆞᄆᆞ'も重要な形態である。

先語末語尾は1人称主語に對する確認法の '-果/ᄒᆞ-'と 過去時制の'-ᄃᆡ-'の先代形 '-ᄃᆞ-'に對応する 'ㅅ'がある。

動名詞語尾としては 'ᄂᆞᄉᆞ'類, 'ᄂᆞᄆᆞ-'類, 'ᄉᆞᄉᆞ音'類などが使われるし、'ᄂᆞᄀᆞᄂᆞ'のように動名詞 'ᄀᆞ'が使われた齟が見られる。 比喩構文は '... ᄂᆞᄉᆞ 如... (ᄉᆞ)' 又は '...ㅅ 如... (ᄉᆞ)-' という形式で現われるが、'ᄂᆞᄉᆞ'が 'ㅅ'と共存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16世紀後半からである。

*キーワード: 高峰和尙禪要, 禪要, 口訣, 口訣字, 口訣吐, 文字体系

〈부록〉

구결토 목록

ᄒᆞ<덕(가):29ㄴ,심.외.운(나):20ㄱ, 표:36ㄴ, 운(가):38ㄱ>
ᄉᆞᄆᆞ<심:18ㄱ>
ᄉᆞᄋᆞ<덕(가):10ㄴ, 운(가):47ㄱ>
ᄉᆞᄋᆞ<덕(나):37ㄴ>
ᄉᆞᄒᆞ<덕(나):1ㄴ>
ᄉᆞᄒᆞ<덕(가):14ㄱ, 표:17ㄴ>
ᄉᆞᄉᆞ<덕(가):30ㄱ, 덕(나):6ㄱ>
ᄉᆞᄒᆞ<표:7ㄴ>
ᄉᆞᄀᆞᄎᆞ<운(나):28ㄴ>
ᄉᆞᄎᆞ<운(가):28ㄴ>
ㅁ(연결)<덕(가):1ㄴ, 심.능:44ㄱ, 외.표:17ㄱ, 운(가):30ㄴ, 운(나):20ㄴ>
ㅁ(의문)<덕(가).덕(나):7ㄴ>
ᄀᆞᆷ<외:14ㄴ, 덕(가):1ㄴ>
ㅁᄂᆞᄋᆞᄉᆞᄉᆞᄀᆞ<덕(가):37ㄱ>
ㅁᄉᆞᆞᄉᆞᄀᆞᄃᆞᄂᆞ<덕(가):39ㄱ, 외.능.운(나):48ㄴ>
ㅁᄉᆞᄀᆞᄂᆞ<심.외.능.표:46ㄱ>
ㅁᄉᆞᄋᆞᄉᆞᄂᆞ<운(나):46ㄱ>
ᄒᆞ<능:3ㄴ, 덕(가):39ㄱ, 덕(나):27ㄱ, 심.표:3ㄴ, 운(가):2ㄱ>
果ㆍᄉᆞᄉᆞ<외:37a>
ᄒᆞㆍᄉᆞᄉᆞ<표:37s>
ᄒᆞᄂᆞㅣ<덕(가):30a>
ᄒᆞᄂᆞㅣᄉᆞᄉᆞ<심:37a>
ᄒᆞᄂᆞ<덕(나):30a>
ㄱ<덕(가):1ㄱ, 덕(나).외.운(나):1ㄴ, 운(가):서1ㄱ, 심.외.표:10ㄱ, 능:서2ㄱ,>
ㄱㅁᄂᆞㅂ<심:2ㄴ>
ㄱᄉᆞᅩ<덕(가):15ㄱ>

ㄱ大<덕(가):6ㄴ, 덕(나).심.표:2ㄱ, 능:1ㄴ, 운(가):8ㄱ, 운(나):19ㄴ>
ㄱ大ㄱ<덕(가):4ㄴ, 심:2ㄴ, 능:44ㄱ, >
ㄱ月し<표:34ㄱ, 운(가):7ㄴ>
ㄱ入ソリ丶<덕(가):35ㄴ>
ㄱ氐<운(가):22ㄴ>
乃<덕(가).덕(나):3ㄴ, 심.외:14ㄱ, 능:서3ㄱ, 표:11ㄱ, 운(가):1ㄱ, 운(나):5ㄱ>
尹<능.표.운(가):4ㄴ>
又丶<능:서4ㄱ>
又丶ソヒカ<심:20ㄴ>
又丶ソヒカ<운(나):20ㄴ>
又丶ソヒヒ<표:18ㄴ>
又丶ソリヒ<운(나):9ㄴ>
又レ丨<운(나):45s>
ヒ<덕(가):1ㄱ, 덕(나):2ㄱ, 심.외:10ㄱ, 능:서2ㄱ ,표:8ㄴ>
ヒ丶<덕(가).덕(나):1ㄴ, 심:2ㄱ, 외:10ㄴ, 능:서2ㄱ, 표.운(나):1ㄱ>
ヒ又丨<덕(나):1ㄴ>
七オレ氵<덕(가):3ㄴ>
ヒ七ロ<심:1ㄴ, 표.운(가):1ㄱ>
ヒヒ<표:1ㄱ>
丨<운(가):25ㄱ>
夕<외:25ㄱ>
丨可<외:47ㄴ>
入ユ<덕(가):11ㄱ>
大<덕(가).덕(나).심:2ㄱ, 외:14ㄴ, 표:1ㄴ, 운(가):5ㄱ, 운(나):2ㄴ>
大ㄱ<덕(가).심.운(나):1ㄴ, 덕(나):9ㄴ, 외:2ㄱ, 능:24ㄱ, 운(가):2ㄴ>
カ<덕(가):3ㄱ, 덕(나):9ㄴ, 심,능.표, 운(나):3ㄴ, 외:23ㄴ, 운(가):25ㄱ>
斗<심:3ㄱ>
斗<표:11ㄱ>
土位<외:16ㄴ>
土ソ<운(가):4ㄱ>

ㅅㄴㅗ<덕(가):5ㄱ>
月ㅅ刀尸ㅅㄴㅂ<외:44ㄱ>
ㅅ乙ノㅣ丶<덕(나)11ㄱ, 외:44ㄴ>
ㅅノㅣ丶<덕(가):36ㄴ>
月ノㅣ丶<외:45ㄴ>
ㅅㄴㅅㅣ午<덕(가):6ㄴ>
月ㅌㅅㄴㅂ<운(나):30ㄴ>
土ㅌㅅㄴㅂ丶<덕(가):14ㄴ>
土ㅌㅅㄴㅣㅂ<덕(가):7ㄱ, 외:8ㄴ>
月ㅌㅅㄴㅣ丶<능:35ㄱ>
月ㅌㅅㄴㅈ<운(나):15ㄱ>
月ㅌㅅㄴㅅ<운(나):15ㄱ>
月ㅌㅅㄴㄷㅂ丶<심:28ㄴ>
月ㅌㅅㄴㄱ<능:32ㄴ, 표.운(나):15ㄱ>
乙<덕(가):2ㄱ, 심.외:2ㄴ, 운(가):3ㄴ, 운(나):7ㄱ>
乙土ㅅㄴ<능.외:47ㄱ, 심:16ㄴ, 운(가):21ㄱ, 운(나):36ㄴ>
乙土ㅂ丶<심:7ㄴ, 외:27ㄱ>
乙土ㅅㄴㅂ丶<심.외:30ㄱ, 운(나):11ㄱ>
乙土ㅅ丶<표:7ㄴ>
丶<덕(가):1ㄴ, 덕(나).운(나):1ㄱ, 외:10ㄱ, 능.표:3ㄴ>
ㅅ<덕(나):22ㄱ>
丶可<능.표:14ㄴ, 운(가).운(나):4ㄴ>
丶ㅁ<덕(나):38ㄱ, 능.운(가):47ㄴ>
丶ㅂ<덕(가):3ㄱ, 외:46ㄱ>
丶刀<덕(가).표:3ㄱ, 덕(나):2ㄴ, 심.능.운(가).운(나):3ㄴ, 외:14ㄱ>
ㅅ刀<외:3ㄴ>
丶斗<심:3ㄱ>
ㅅノㅂ<외:1ㄱ>
丶ノㅣ<심:1ㄱ>
丶ノㅣㅂ<심:23ㄴ>

・ノリ・<덕(가).덕(나):20ㄴ, 심:10ㄴ, 외.능.운(가):23ㄴ, 표:25ㄴ, 운(나):41ㄴ>
・ノリ・ンロ<외:20ㄴ>
・ノ勿又<심:33ㄴ>
・ノ乀丨<덕(가):39ㄱ>운(나):
・ノ丁<능:1ㄱ, 운(나):1ㄱ>
・ノし入ㅗ<덕(가):21ㄴ>
・ンロ<능.운(나):서2ㄱ, 덕(나):, 심.외:47ㄴ, 운(가):48ㄴ>
・ンカ<덕(가):29ㄴ, 능:36ㄴ>
・ン尹<표:36ㄴ>
・ンヌヒ・<덕(가):17ㄱ>
・ンヒ<덕(가):27ㄴ, 덕(나):35ㄴ, 심:44ㄴ, 외:22ㄱ, 능:9ㄱ, 표:10ㄱ, 운(가).운(나):36ㄴ>
・ンヒカ<덕(가):16ㄴ, 덕(나):31ㄱ, 외:20ㄴ>
・ンヒ・<심:22ㄴ, 외:21ㄴ, 능.표.운(나):27ㄱ, 운(가):37ㄴ>
・ンヒヒ<덕(가):15ㄱ, 외.운(나):18ㄴ>
・ンヒヒ・<덕(가):26ㄴ>
・ン丨<표:9ㄱ>
・ンカニヒ<표:47ㄱ>
・ン・<외:43ㄴ, 운(가):2ㄴ>
・ンリヒ<능:9ㄴ>
・ンリ・<운(나):12ㄴ>
・ンク<덕(가).운(나):37ㄴ, 덕(나):18ㄱ, 심:31ㄴ, 외:22ㄴ>
・ンへ<덕(가):18ㄱ, 외:47ㄱ, 능.운(나):서2ㄱ>
・ンニロ<덕(가):37ㄴ, 덕(나):36ㄱ, 외.표.운(가):46ㄴ, 능:44ㄴ>
・ンニヒ<덕(가):8ㄱ, 심:6ㄱ, 외:10ㄱ, 운(가):21ㄴ, 능.운(나):5ㄴ, 표:22ㄱ>
・ンニヒ・<덕(가):7ㄴ, 심:5ㄴ, 표:6ㄱ, 운(나):9ㄱ>
・ンニ丨<덕(가):5ㄱ>
・ンニガ乀丨<심:46ㄴ>
・ンニガ乀丨<운(나):46ㄴ>
・ンニク<덕(가):25ㄴ, 외:31ㄴ, 능.표:31ㄴ, 운(나):44ㄴ>

丶ㅅㄱ大<덕(가):5ㄱ>
丶ㅅㄱ<능:47ㄱ, 덕(가):37ㄴ>
丶ㅅㄱㅂ<표:23ㄴ>
丶ㅅㄱㄹ<심.능.운(나):서3ㄴ, 운(가):서2ㄴ>
丶ㅅ大ㄱ<심:7ㄱ>
丶ㅅㄱㅅ<덕(가):4ㄱ>
丶ㄱ<덕(가):1ㄴ, 외:1ㄴ>
丶ㄱ大<심:17ㄴ, 표:4ㄴ, 능.운(나):35ㄱ>
丶ㄱㅁ<심:28ㄱ, 표:36ㄴ>
丶ㅂㅣ<덕(가):14ㄱ, 심:17ㄱ>
丶ㅂㅣㅁ<운(나):47ㄴ>
丶ㅂㅣㅅㅣ丶<표:17ㄱ>
丶ㅂㅣㅅㅣㅂ<심:5ㄱ>
尸ㅂ<심.외:21ㄱ, 능:20ㄱ, 운(나):48ㄱ, 표:3ㄱ>
尸ㅂ<능:48ㄱ, 덕(나):38ㄱ, 외:3ㄴ>
尸丶< 덕(나).심.표.능:3ㄱ, 운(나):8ㄱ>
尸丶<운(가).운(나):3ㄱ>
尸ㅅ<외:3ㄴ>
尸ㅅㅣ<심.외:47ㄱ, 능.표.운(가).운(나):46ㄴ>
尸ㅅㅌ<외:48ㄴ>
ㅈ<덕(가).덕(나):1ㄴ, 심:2ㄱ, 외:10ㄴ, 표:3ㄴ, 능.운(가):서1ㄴ, 운(나):6ㄱ>
ᄴ<덕(가):4ㄴ>
ᄽ<덕(나):2ㄱ>
ㅈㅣ<덕(가).심.표.운(나):1ㄴ, 덕(나):11ㄴ, 외:14ㄱ, 능.:서1ㄴ, 운(가):1ㄱ>
ㅈㅌ<외:10ㄴ>
ㅈㅣㅅㅂ<심.능:37ㄴ>
ㅈㅣㅅㄷㅅ<심:31ㄴ>
ㅈㅁ<심:21ㄱ, 능:49ㄱ, 표:10ㄱ, 운(가):46ㄱ>
ㅈㅂ<운(나):43s>
ㅈ尸ㅂ<덕(가):35ㄱ>

又土ヒ<외:43ㄴ>
又土ヒ<심:17ㄱ>
又尸丶丨<덕(가).표:1ㄴ, 운(가):45ㄴ>
又土丶丨<운(나):45ㄴ, 심:1ㄴ>
又土丶夕<외:1ㄴ>
又氵<덕(나):37ㄱ>
又ソつ<외:40ㄱ>
又丁<덕(나):4ㄴ, 외:48ㄴ>
又丁土<덕(가):35ㄴ>
又ヒ?<운(나):3ㄴ>
又七カ丶<심.운(나):3ㄴ, 외:26ㄴ>
刂口<덕(나):1ㄱ>
刂ヒ<능:15ㄴ, 외:19ㄴ, 표:6ㄴ>
刂丶<덕(가).심:1ㄱ, 덕(나):10ㄱ, 외.능.운(나):17ㄱ, 표.운(가):5ㄱ>
刂ホ<외:7ㄱ>
刂午<덕(가):1ㄴ, 덕(나):4ㄱ, 심.표:5ㄱ, 외:10ㄱ, 능:서4ㄴ, 운(가).운(나):7ㄴ>
刂七可<운(가): >
刂七口<덕(나).능:1ㄴ, 외:1ㄱ, 운(가).표:47ㄴ>
刂七ノヒ<심:30ㄴ>
乙<덕(나):2ㄱ, 외:20ㄴ, 능:서1ㄴ, 표:2ㄴ>
久<덕(가):6ㄱ, 덕(나).능:2ㄱ, 심: 36ㄱ, 외:15ㄴ, 표:2ㄴ>
ナ<심.능운(나):4ㄴ, 외:14ㄱ, 운(가):1ㄴ, 표:2ㄱ>
七<덕(가):29ㄱ, 덕(가):2ㄴ>
叱小ヒ丶<덕(나):33ㄴ>
七可<능:2ㄱ, 외.표.운(나):1ㄱ>
七口<덕(가):16ㄱ, 심.능.표:1ㄴ, 외.운(나):1ㄱ>
七丨ソ巴口<심:47ㄴ>
氵<덕(가):36ㄴ, 덕(나):27, 심:34ㄱ, 표:25ㄱ, 능:40ㄴ, 운(나):39ㄱ>
氵刂丶<표:28ㄴ>
氵ソ刂ヒ<운(나):)28ㄴ>

ㅕノリ丶<덕(가):22ㄴ, 덕(나):31ㄱ, 외:39ㄴ, 심:19ㄱ, 외.능:28ㄴ, 운(나):37ㄴ>
ヘセㅣ<운(가):>
ニヒ<덕(가):29ㄴ, 심.외.운(가):21ㄱ, 능.표:5ㄴ, 운(나):6ㄱ>
ニヒ丶<덕(가):17ㄴ, 덕(나):4ㄴ, 심,능:2ㄱ, 표.운(나):22ㄱ>
ニリ午<심:발2s, 운(가):발4ㄱ, 운(나):서4ㄱ>
ニク<심:16ㄴ, 외.표.능.운(가).운(나):35ㄴ, 표:35ㄴ>
ニア<운(가):46ㄴ>
土ㄴ<덕(가):37ㄴ>
月ユ<심:, 외:4ㄴ>
月セユ<표:4ㄴ>
七入ユ<덕(가):3ㄱ>
ア<덕(가):19ㄴ, 덕(나):31ㄴ, 심.표.운(나):5ㄱ, 외:14ㄱ, 능:23ㄴ, 운(가):1ㄱ>
アンヒ<운(가).표:43ㄴ, 운(나):43ㄴ>
アンヨ尸ヒ<덕(가).덕(나):35ㄱ, 심:43ㄴ>
アンカ土ヒ<외:43ㄴ>
ㅋ<외:9ㄴ, 능:서4ㄱ, 덕(나):1ㄴ, 심:1ㄱ>
厂<운(가):3ㄴ, 운(나):11ㄱ, 표:3ㄱ>
ㅋ丁<외:14ㄱ>
オ了<외:42ㄱ>
オ女ンつ<표:4ㄴ>
オ乙<덕(가):37ㄴ, 덕(가):39ㄱ, 심:13ㄱ, 외:21ㄱ, 표:16ㄴ, 운(가):1ㄴ, 능.운(나):서3ㄴ>
ネ乙<운(나).능:13ㄱ>
オヒ<덕(가).덕(나):6ㄱ, 심:13ㄱ, 외:44ㄴ, 능:서3ㄴ, 운(가):48ㄱ, 표.운(나):5ㄴ>
ネヒ<능:7ㄴ>
オヒ月セユ<심:39ㄴ>
オヒ月ユ<심.운(나):39ㄴ>
女ヒト<표:2ㄴ>
オヒト<덕(가).덕(나).심.운(가).운(나):1ㄴ, 외:32ㄱ, 능:16ㄱ>
ネヒト<능:1ㄴ>

ㅇㅣ<덕(가):7ㄴ, 덕(나).능.운(나):10ㄱ, 심:6ㄴ, 운(가).:2ㄴ, 표:12ㄱ>
ᄉㅣ<능:15ㄱ>
ㅇㅅ<덕(가):14ㄱ, 덕(나):27ㄱ>
ㅇㅅㄱ<능:32ㄴ, 심:4ㄱ, 운(가).운(나):7ㄴ>
ㅇㅗ<표:16ㄴ, 외:32ㄴ>
ᄉㅅㄱ<능:7ㄴ>
ㅇㅈ<덕(가):7ㄴ>
ㅇㄷㅌ<능:49ㄱ, 덕(가):30ㄴ, 덕(나):4ㄴ, 외:5ㄴ>
ㅇㄷㄴ<덕(가).덕(나):29ㄱ, 심.외.표.운(가).운(나):36ㄱ>
ㅇㄷ万ㄱ<덕(나):서2ㄱ>
ㅇㄷㅌㅣ<덕(나):32ㄱ>
ㅇᅟ<외:21ㄴ>
ㅇㄱㄲ<덕(가).덕(나):13ㄴ, 심:15ㄴ, 외:48ㄴ, 능.표.운(가).운(나):16ㄴ>
ㅎㄱㄲ<덕(가):12ㄴ>
ㅇㄱ万<운(가):32ㄴ, 운(나):서1ㄴ>
ㅇ万ㄱ<운(가):발4ㄱ>
ㅇㄱ广ㄱ<덕(가):26ㄱ, 심.외:27ㄱ>
ㅇㄱ万ㄱ<능:서1ㄴ, 심:32ㄴ, 표.운(나):27ㄱ>
ㅇㅌㅣ<덕(가):30ㄴ>
ㅇ<덕(가).표.운(나):1ㄱ, 덕(가):6ㄴ, 외:10ㄱ, 능:9ㄴ, 운(가):2ㄴ>
ㅇㄴ<덕(가):1ㄱ, 덕(나):10ㄴ, 외:2ㄴ>
ㅇㄴ<덕(나):31ㄴ, 운(가).운(나):6s>
ㅇㄱ<덕(가)덕.(나):.표: 3ㄱ, 심:3ㄴ, 외:28ㄱ, 운(가):12ㄱ, 능.운(나):7ㄴ>
ㅇㄴㄱ<덕(가):4ㄴ, 덕(나):3ㄱ>
ㅇㄴㄱ<덕(나):, 심:6ㄴ>
ㅇㄲ<덕(가):3ㄱ, 덕(나):10ㄴ, 심.능.운(나):3ㄴ, 외:8ㄴ, 운(가):5ㄱ, 표:8ㄱ>
ㅇㄴㄲ<심:8ㄴ, 운(가):3ㄴ>
ㅇㅌ<심:3ㄱ, 운(가):29ㄴ, 표:29ㄴ>
ㅇᅟ<능:14ㄴ , 운(가):33ㄴ, 심.외.표.운(나):14ㄴ>
ㅇㄴᅟ<덕(가):12ㄱ, 운(가):14ㄴ>

ㅇㅡ<심:28ㄱ>
ㅣ<덕(가):21ㄴ>
ㅗ<덕(나):25ㄴ, 덕(가):8ㄱ, 심.외.능.표.운(가).운(나):10ㄱ)
ㅛ<외:10ㄱ>
ㅗㄴ<덕(나):36ㄴ, 심:43ㄴ, 외:3ㄱ, 표:4ㄱ, 능:11ㄱ, 운(가).운(나):26ㄱ>
ㅗㄴㄲ<외:3ㄴ, 능.운(가):23ㄱ>
ㅗㄴㅐ<심:39ㄴ>
ㅗㄴㄱ<심:40ㄱ>
ㅜ<덕(가):10ㄱ, 덕(나).심.표.운(나):1ㄱ, 외:10ㄱ, 운(가):4ㄱ>
ㅜ<덕(가):6ㄱ, 덕(나):2ㄴ, 심:7ㄴ, 운(가):3ㄱ, 운(나):10ㄱ>
ㅜㄷㅅ<덕(가):33ㄴ>
ㅜㄷㅛ<외:23ㄴ>
ㅜㄷㄷㄴ<덕(가):38ㄴ>
ㅜㅅㅂ<표:10ㄱ>
ㅜㅅ·ㅅㄱㄷㄴ<능.심.운(나):45ㄴ>
ㅜㅅㄲ<능:23ㄴ, 심:23ㄴ, 운(나):41ㄴ>
ㅜㅅㅅ<능.외.표.운(나):46ㄴ>
ㅜㅅㄷㅁ<심.외.능:46ㄴ>
ㅜㅅㄷㅂ<덕(나):37ㄱ>
ㅜㅅㄷㅣㅎ<심:46ㄴ>
ㅜㅅㄱㄷㄴ<덕(나):38ㄴ, 심.외.능.표.운(나):48ㄱ>
ㅜㄱ<심:수사의문, 운(나):4ㄴ, 표:4ㄴ>
ㅏ<능:서4ㄱ, 덕(가):?, 덕(나).심.운(가).운(나).표:1ㄴ, 외:5ㄴ>
ㅏㅈ<심:22ㄱ, 외:38ㄱ, 표: 22ㄱ>
ㅏㅎ<운(가):41ㄴ>
ㅏㄱㅁ<심.외.능.표.운(나):41ㄴ>
ㅏㄴ<외.능.운(나):45ㄱ>
ㄴ·ㄱ<덕(가):32ㄱ>
ㅋ<덕(가):3ㄱ, 덕(나).심.표.운(나):1ㄱ, 외:4ㄱ, 능:2ㄱ, 운(가):서1ㄴ>
ㄴ<덕(가).덕(가).심.표:1ㄱ, 외:10ㄴ, 능.운(가):서1ㄴ, 운(나):1ㄴ>

ㄴ乃<외:6ㄱ>
ㄴヒ<덕(나):10ㄱ, 심:2ㄱ, 운(가):1ㄱ, 외:6ㄱ>
ㄴヒ・<덕(나):1ㄴ, 심:9ㄱ, 운(가):발3ㄱ>
ㄴヒ午<덕(나):1ㄴ>
ㄴ・<심:1ㄱ>
ㄴ・<덕(가):2ㄱ, 덕(나):15ㄱ, 외:3ㄴ, 운(가):4ㄱ>
ㄴ厶<외:4ㄴ>
ㄴ・カ<덕(나):5ㄱ, 외:44ㄱ, 덕(가):16ㄱ>
ㄴ・ノ丁乙ロ<덕(가):38ㄱ>
ㄴ・ン・<덕(가):35ㄱ>
ㄴ・セ丨ンリオヒト<심:>
ㄴ尸ㄴ丨<심:46ㄱ>
ㄴ尸・<심:3ㄱ>
ㄴ又小丨<덕(나):1ㄴ>
ㄴ又丁土<외:3ㄱ>
ㄴリ・<덕(가):13ㄱ, 심:13ㄴ, 외:5ㄱ>
ㄴリㄴセロ<덕(가):38ㄱ>
ㄴ久<덕(나):1ㄱ, 심:43ㄱ, 운(가):1ㄴ>
ㄴア<덕(가):9ㄴ, 심:서1r>
ㄴニヒ<운(가):6ㄱ>
ㄴニヒ・<심:5ㄱ>
ㄴニ・ヒ・<심:19ㄴ>
ㄴニ久<운(가):35ㄴ>
ㄴ月ナ<심:27ㄱ>
ㄴ月セナ<심:42ㄴ>
ㄴ氵<심:,8ㄴ 덕(가):20ㄱ, 외:7ㄱ>
ㄴ也<운(가):40ㄴ>
ㄴオヒト<심:35ㄱ>
ㄴ丁ロン・ンつニし<심:48ㄴ>
ㄴ大<덕(가):23ㄴ, 덕(나):2ㄱ>

ㄴㄱ 大<심:14ㄱ, 외:6ㄱ, 운(가):서1ㄱ>
ㄴ大ㄱ<덕(나):1ㄴ 심:45ㄱ, 외:4ㄴ>
ㄴㄱ ㅅㅗ<덕(가):28ㄱ>
ㄴㄱ ㅅ<덕(가):8ㄱ>
ㄴㄷ可<덕(가).덕(나):1ㄱ>
ㄴㄷㅁ<덕(가):19ㄱ, 덕(나).심:1ㄱ, 외:2ㄱ>
氐<운(나):1ㄴ>
ㅈ乙<능:47ㄱ, 외:16ㄴ>
ㅈㅂ午<덕(가):33ㄴ>
ㅈㅂㅏ<덕(가):37ㄱ, 덕(나):36ㄴ, 심:23ㄴ, 외:10ㄱ, 표:38ㄱ>
ㅈㅅㄱ<덕(가):6ㄱ, 덕(나):8ㄴ>
ㅈㄷㅂ<능:48ㄱ, 덕(가).심.운(나):1ㄴ, 외:48ㄱ>
ㅈㄷㄴ<덕(가):37ㄱ, 심:47ㄱ, 덕(나):38ㄴ>
ㅈㄷㄱ 万ㄱ<능:서2ㄱ>
ㅈㄱ 大<심:14ㄱ, 외:28ㄴ>
ㅈ大<덕(나):, 표:14ㄱ>
ㅈㄱ 大ㄱ<심:28ㄴ, 심:7ㄴ>
ㅈ大ㄱ<능:27ㄴ>
ㅈ丶<능.표:14ㄱ>
ㅈㄴ丶<덕(가):11ㄴ, 심:14ㄱ>
巨ㄴ丶<운(가):14ㄱ>
ㅈノ川丶<심.운(나):18ㄴ>
ㅈㄴノ川丶<능:18ㄴ, 덕(가):11ㄴ, 심:2ㄱ, 운(나):43ㄴ>
ㅈソヌㅂ<덕(나):29ㄴ>
ㅈソヌ丶<심.표:36ㄴ>
ㅈㄴソヌ丶<운(나).심:38ㄱ>
ㅈㄴソヌㄱ 尸<덕(가):15ㄱ>
ㅈソㅂ<표:2ㄱ>
ㅈソㅂㅂ<외:7ㄱ>
ㅈソㅂㅂ丶<심:18ㄱ>

ㅈㄴㅅㅂㅂ<능:18ㄱ, 덕(가):14ㄴ>
ㅈㄴㅅㅛㅣ<심:23ㄴ>
ㅈㄴㅅㄱㅂ<외:1ㄴ, 덕(가):6ㄱ, 심:서2ㄱ>
ㅈㅅㄱㅂ<운(나):서2ㄴ>
ㅈㅅㄱ<덕(나):26ㄴ>
ㅁㄱ<심:26ㄴ>
ㅁㄱㅊ<덕(가):33ㄴ>
ㅣ<덕(가):24ㄱ, 심:45ㄱ, 표:5ㄱ>
ㅣㅇㅐㆍ<심:25ㄴ, 운(나):25ㄴ>
ㅗ𠂇<운(가):18ㄴ>
ㅗㅌㅅㅂ<덕(가):10ㄱ>
ㅐㅌㅅㅂ<심:46ㄴ>
ㅐㅌㅅㅐㆍ<덕(나):28ㄱ>
ㅗㅌㅅㅈ<덕(가):12ㄱ:>
ㅗㅌㅅㄱ<덕(가):10ㄴ, 덕(가):5ㄱ>
ㅗ𠮷ㅅㄱ<외:6ㄴ>
ㅇㅂ<덕(가).:외.운(나):2ㄴ, 덕(나):6ㄴ, 심:3ㄱ, 능:서2ㄴ, 표:2ㄴ운(가):서1ㄴ>
ㅇㅂㅗ<덕(가):9ㄱ>
ㅇㅣ<외:29ㄴ>
ㅇㅎ<운(가):39ㄱ>
ㅇㅊ<능:39ㄴ>
ㅇㅁ<덕(가):1ㄱ, 덕(나):8ㄴ, 심.외:27ㄱ, 능:서.표.운(나):4ㄱ, 운(가):3ㄱ>
ㅇㆍ<덕(가):3ㄴ, 덕(나):6ㄴ, 심:3ㄴ, 외.능.표.운(나):4ㄱ>
ㅇㆍㅅㄱㅌ<심:10ㄱ>
ㅇㆍㅅㄱㅂ<덕(나):30ㄱ>
ㅇㆍㅅㄱㅣ<표:5ㄴ>
ㅋㅊㅅㄱ<표:4ㄴ>
ㅇㅐㅂ<덕(가):5ㄴ, 덕(나):7ㄱ, 외:8ㄱ, 표:>
ㅇㅐㆍ<덕(가).덕(나):2ㄱ, 심.능:4ㄴ, 외:28ㄴ, 표:2ㄴ, 운(가):19ㄴ, 운(나):5ㄱ>
ㅇㅐㅅ<외:5ㄴ>

ノリ・ロ<덕(가):16ㄴ>
ノリ・ソカヒ<표.운(나):48ㄴ>
ノリ・ソニロ<심.외.능.운(나):47ㄱ>
ノリ・ソ土ト<심:45ㄴ>
ノリ・ソつ<덕(나):37ㄱ, 심.운(나):4ㄴ, 외:48ㄴ, 능:45ㄴ>
ノリヽタ<외:45ㄴ>
ノリセ可<능:32ㄴ>
ノ매<능:39ㄱ>
ノ久<덕(가):8ㄴ, 외:37ㄴ, 능:48ㄴ>
ノソ<심.능.운(나):3ㄱ, 표:4ㄱ, 운(가):서1ㄱ>
ノ勿又<심:27ㄱ>
ノ勿し<표:16ㄴ>
ノヽ丨<덕(가).덕(나):37ㄱ, 심.외.능.표, 운(나):46ㄱ, 운(가):48ㄱ>
ノ丁<능:29ㄴ, 덕(나): 37ㄴ, 외:47ㄴ>
ノ丁土<덕(가).심:3ㄱ, 덕(나):6ㄴ, 외:29ㄴ, 표:44ㄱ, 운(나):20ㄱ>
ノ土<능:20ㄱ>
ノ丁入又<덕(가):17ㄱ, 능.심.운(나):21ㄱ, 외:27ㄱ>
ノ丁入灬<덕(가):18ㄱ>
ノ丁ホ又<외:29ㄴ>
ノ丁ム<운(나).표:3ㄴ, 덕(가):3ㄱ>
ノ丁ム丁<덕(가):39ㄱ>
ノ丁し<덕(가):37ㄱ>
ノし<덕(가):15ㄴ>
ノ乙ヒ大丁<능:17ㄴ>
ノし丁<덕(가):3ㄱ>
ノ乙ソリ午<덕(나):6ㄴ>
ノロ<덕(나):6ㄴ>
ヲ<덕(가).표.운(나):2ㄴ, 덕(나):2ㄱ, 심.외:3ㄱ, 능:서1ㄴ, 운(가):서1ㄴ>
ソ土ホ<외:44ㄱ>
ソロ<덕(가):8ㄱ, 덕(나):1ㄴ, 심:2ㄴ, 외:2ㄱ, 능.표.운(가):2ㄴ, 운(나):4ㄴ>

ㅅㄱ<덕(가).덕(나):2ㄴ, 심:6ㄱ, 외:3ㄴ, 능:3ㄱ, 표:11ㄴ, 운(나):15ㄴ>
ㅅㅋ<표:17ㄱ>
ㅅㅈㅌ<덕(가):6ㄴ, 덕(나):6ㄴ, 심.표:8ㄱ, 외:16ㄱ, 능:8ㄴ운(가):10ㄱ, 운(나):8ㄱ>
ㅅㅈㅌ丶<덕(나):13ㄱ>
ㅅㅈㄱ?<덕(나):8ㄴ>
ㅅㅈㅣ<능:서4ㄴ, 덕(가):21ㄱ, 덕(나):36ㄴ, 운(가):서2ㄴ>
ㅅㅈ丶<덕(나):13ㄴ, 심:14ㄱ, 외:16ㄴ,능:서1ㄴ, 표:29ㄱ 운(가):8ㄱ, 운(나):29ㄱ>
ㅅㅈ丶ㅁ<심:20ㄴ>
ㅅㅈ丶ㅅㅁ<운(나):20ㄴ, 표:20ㄴ >
ㅅㅈㅅㅣ<능:45ㄱ, 덕(가):36ㄴ, 덕(나):38ㄴ, 심.표:45ㄴ, 운(나):47ㄴ>
ㅅㅈㄱㅗ<덕(가):10ㄱ>
ㅅㅈㅗ<덕(가):12ㄱ, 덕(나):9ㄱ, 심:11ㄱ, 외:44ㄴ>
ㅅㅈㄱㅅ<외:49ㄱ>
ㅅㅌ<능:서1ㄴ, 덕(가):1ㄱ, 심:,12r 운(가):3ㄱ, 외.운(나):4ㄱ, 표:8ㄱ>
ㅅㅌㅌ<덕(나):6ㄱ>
ㅅㅌㅣ?<덕(나):36ㄴ>
ㅅㅌㄲ<능.심.운(나):11ㄱ, 덕(가):9ㄱ, 덕(나):16ㄴ, 외:20ㄱ>
ㅅㅌ丶<덕(가):19ㄴ, 덕(나).심.외.운(나):1ㄱ, 운(가):10ㄴ, 표:21ㄱ>
ㅅㅌㅡ<덕(가):10ㄴ>
ㅅㅌㄱ<심:발2r>
ㅅㅌㄱ<운(나):서4ㄱ>
ㅅㅌㅌ<덕(가).덕(나).심.운(나):1ㄱ, 능.운(가):11ㄴ, 표:16ㄴ, 외:17ㄴ>
ㅅㅌㅌㄲ<외:36ㄴ>
ㅅㅌㅌ丶<덕(가):1ㄴ, 능:32ㄱ, 심:16ㄴ>
ㅅㅌㅌㅣ<운(나):41ㄱ>
ㅅㅌㅌㅁ<덕(가):1ㄴ>
ㅅㅌㅣ<덕(나):10ㄴ, 심:18ㄴ, 외:41ㄱ, 덕(가):10ㄴ>
ㅅㅌㅌ<외:31ㄴ>
ㅅㅌㄱ<능:46ㄴ>
ㅅㅌㄱㅌ<덕(나):6ㄱ>

ㅅㅏ<외:21ㄴ>
ㅅㅣㅎ<덕(가).덕(나):37ㄱ, 심.능:21ㄱ, 외:46ㄱ, 표:11ㄴ, 능:46ㄴ>
ㅅㅣㅌ<덕(가):36ㄴ, 덕(나):37ㄴ, 심:47ㄱ, 표:4ㄱ, 운(가):23ㄱ, 운(나):48ㄴ>
ㅅㅣ、<표:10ㄴ>
ㅅカㅌ<덕(나):37ㄴ>
ㅅカ丶<덕(나):38ㄴ>
ㅅガタ<외:46ㄱ>
ㅅガ丶<외:3ㄱ>
ㅅガニㅌ<외:46ㄴ>
ㅅㅅニㅅㅣ<덕(가):37ㄴ>
ㅅガニㅅㅣ<외:46ㄴ>
ㅅガㅅㅣ<외:46ㄴ>
ㅅㅅㅅㅣ<덕(가):37ㄱ>
ㅅカㅣ<덕(나):37ㄴ, 능.심:23ㄴ, 능.표.운(나):23ㄴ>
ㅅカタ<외:23ㄴ>
ㅅカセガ、<능:3ㄴ>
ㅅ효)?<덕(가):28ㄱ>
ㅅム<심:4ㄱ, 표:2ㄱ>
ㅅ、<덕(가):10ㄴ, 덕(나.심.운(나):1ㄱ, 외:10ㄱ, 능:서4ㄴ, 표:2ㄱ, 운(가):24ㄱ>
ㅅ、ㅅカ<덕(가):35ㄱ>
ㅅ、ㅅ土午乙土ㅅ<심:46ㄱ>
ㅅ、ㅅつニ乙<운(나):46ㄱ>
ㅅ、ㄱ大<덕(가):4ㄱ, 외:28ㄱ, 능:17ㄴ, 심.운(나):4ㄴ>
ㅅ、大<심:35ㄱ, 외:35ㄱ>
ㅅ、ㄱ大ㄱ<덕(가):21ㄱ, 심:17ㄴ>
ㅅㅐ< 덕(가).덕(나):12ㄱ, 외:30ㄴ>
ㅅㅐㅌ<덕(가):7ㄴ, 덕(나):5ㄴ, 심,운(가):6ㄴ, 외:22ㄱ, 능:2ㄱ, 운(나):7ㄱ, 표:5ㄱ>
ㅅㅐ、<덕(가):4ㄴ, 덕(나):4ㄱ, 외.운(가):1ㄴ, 심.능.표.운(나):2ㄱ>
ㅅㅐク<심:, 외:2ㄱ>
ㅅㅐオㅌ<덕(가):12ㄴ>

ㅅㅣㅇㅏㅌ<덕(나):23ㄱ, 외:2ㄴ>
ㅅㅣㅐㄱ<덕(가):8ㄱ>
ㅅㅣㅈㄱ<덕(나):8ㄱ>
ㅅㄱ<덕(가):7ㄱ, 덕(나).표:2ㄱ, 심.외:10ㄱ, 능:서1ㄴ, 운(가):발4ㄱ, 운(나):2ㄴ>
ㅅㄱㅋ<덕(가):3ㄴ, 외:4ㄱ>
ㅅㄲ<덕(가).능.표.운(나):2ㄱ, 덕(나):3ㄴ, 심:2,ㄴ, 외:10ㄱ, 운(가):13ㄴ>
ㅅㅅ<덕(가):1ㄴ, 덕(나):5ㄱ, 심.외.:6ㄱ, 능:28ㄴ, 표:21ㄱ, 운(가):6ㄱ, 운(나):35ㄴ>
ㅅㅊ<덕(나):5ㄱ>
ㅅㅅㅂ<외:26ㄴ>
ㅅㅅㄲ<운(나).능:36ㄱ>
ㅅㅅㅁ<덕(가):1ㄴ, 덕(가):6ㄱ, 심외.능:2ㄱ, 표:28ㄴ, 운(가):6ㄱ, 운(나):38ㄱ>
ㅅㅅㅎ<운(가):46ㄴ>
ㅅㅅㅅ<심:발2ㄱ, 운(나):서1ㄴ, 능:35ㄴ>
ㅅㅅ未<외:35ㄴ>
ㅅㅅㄱ<덕(나):1ㄴ, 외.표:47ㄱ>
ㅅㅅㄱㅅㄱ<덕(가):4ㄴ>
ㅅㅅ乙ㅅㅅㄱ<덕(가):37ㄱ>
ㅅㅅㅎㄲ<덕(나):, 표:21ㄱ>
ㅅㅅㅁㄲ<심:21ㄱ, 외:36ㄱ>
ㅅㅅㅁㅛ<심:35ㄴ>
ㅅ小ㅡ<덕(가).덕(나):39ㄴ, 심.외.능.표.운(가).운(나):49ㄱ>
ㅅㄷㅁ<덕(가).덕(나):37ㄱ, 심.외.표.능:2ㄱ, 운(가).운(나):31ㄴ>
ㅅㄷ乃<능:서3ㄱ, 심:,발1ㄱ, 운(나):서3ㄱ>
ㅅㄷㅂ<덕(가):27ㄱ, 덕(나):5ㄱ, 심.외:45ㄴ, 능:서1ㄴ, 운(가):6ㄱ, 운(나):5ㄴ>
ㅅㄷㅂㅂ<덕(나):37ㄱ, 외:46ㄱ, 표:46ㄱ>
ㅅㄷㅣ可<표:36ㄱ>
ㅅㄷガㅣ<심:46ㄴ>
ㅅㄷガㄴㅣ<능.운(나):46ㄴ>
ㅅㄷㅛㆍ<심:12ㄴ>
ㅅㄷㅈ<덕(가):27ㄱ, 덕(나):25ㄴ, 심.외.표:33ㄴ, 능:서3ㄱ, 운(나):31ㄴ>

ㅅㄷㄱ 大<덕(가):16ㄴ, 심:20ㄴ, 운(나):6ㄱ, 표:26ㄱ>
ㅅㄷ大ㄱ<외:6ㄱ>
ㅅㄷㄱ 大ㄱ<심:6ㄱ>
ㅅㄷ乙士丶<덕(가):37ㄴ, 덕(나):36ㄴ, 심외.능.표:45ㄴㄴ>
ㅅ士午久<운(나):48ㄱ>
ㅅ士午丶丨<심:47ㄴ, 표:48ㄱ >
ㅅ士午乃<심.능:48ㄴ, 외:45ㄴ>
ㅅ士午ㅂ<심:45ㄴ, 능:48ㄱ, 표:46ㄴ>
ㅅ士午厶<심:48ㄱ>
ㅅ士午久<심:46ㄱ>
ㅅ兒午ㅂ<덕(나):29ㄴ>
ㅅ士卜<심:46ㄱ, 외:47ㄴ>
ㅅ士卜ㄱ广ㄱ<심:45ㄴ>
ㅅㄱ<덕(가).덕(나).심.표.운(나):1ㄱ, 외:2ㄴ, 능:서1ㄴ, 운(가):발3ㄴ>
ㅅㄱㅂ<덕(가):20ㄴ>
ㅅㄱㅂ卜<덕(가).덕(나):30ㄴ>
ㅅㄱㅂㅂ<덕(나):37ㄱ>
ㅅㄱㄴ<덕(가):25ㄱ, 외.표:20ㄴ, 능:서2ㄴ>
ㅅㄱ刀<덕(가):2ㄴ, 덕(나).표.운(가):3ㄱ, 심.외:7ㄱ, 능.운(나):3ㄴ>
ㅅㄱ入ㄱ<심:25ㄴ>
ㅅㄱㅂㅁ<덕(가):15ㄴ>
ㅅㄱ氵<덕(가):26ㄴ, 덕(나):17ㄱ, 외.운(가).운(나).능.표:8ㄱ>
ㅅㄱ也<표:46ㄱ>
ㅅㄱ一<심:7ㄴ, 외:26ㄴ, 표:2ㄴ>
ㅅㄱㄷㅂ<덕(가):4ㄴ, 덕(나):37ㄱ, 외:40ㄴ>
ㅅㄱㄷㄴ<덕(가):37ㄱ, 심:46ㄱ, 외:46ㄱ>
ㅅㄱ丶丨<능:48ㄱ>
ㅅㄱ丶丨ㅅ<덕(가):30ㄱ>
ㅅㄱ厷ㄷㅂ<능:1ㄴ>
ㅅㄱㄱ<덕(가).표:3ㄴ, 덕(나):4ㄱ, 심.외,운(나):5ㄱ, 운(가):2ㄴ>

ㅅㄱㄱ ㅗ<덕(가):3ㄴ>
ㅅㄱㅣ ㅋ<외:14ㄴ>
ㅅㄱㅌㅣ ㅋ<심.외.능:15ㄱ>
ㅅㅇㅌㅏ<외:10ㄴ>
ㅅㅅㅣ<표:47ㄱ>
ㅅㅅㄴ<덕(나):10ㄴ>
ㅅㄱ<덕(가):12ㄱ, 덕(나):5ㄴ, 외.표.운(나):41ㄱ>
ㅅㄱㅣ<심.운(나):1ㄴ>
ㅅㄱㅁ<외:1ㄴ>
ㅅㄱㅊ<덕(가).덕(나).외.운(나):1ㄴ, 능:4ㄴ, 심.표:2ㄱ>
ㅅㄱㅎ<덕(가):30ㄴ>
ㅅㅊㄱ<덕(가):10ㄴ, 외:2ㄴ>
ㅅㄱㅗ<덕(가):35ㄴ, 외:44ㄱ>
ㅅㄱㅅㅠ<덕(나):23ㄴ>
ㅅㄱㅅ<덕(가):4ㄱ>
ㅅㅅㄴ<덕(가):6ㄱ>
ㅅㄱㅂ<덕(나):6ㄱ, 능:34ㄱ, 심.외.운(나):7ㄴ>
ㅅㄱㅂㄹ<능:7ㄴ, 심:34ㄱ>
ㅅㄹㄷ<덕(가):28ㄴ>
ㅅㄹㄷㆍ<덕(가):22ㄴ>
ㅅㄹㄷㅜ<덕(가):22ㄴ>
ㅅㄹㅗ<덕(나):2ㄱ>
ㅅㄹㅗㅅ<덕(가):17ㄱ, 덕(나):35ㄱ, 심.능.운(나):12ㄱ, 외:41ㄴ, 표:11ㄴ>
ㅅㄴ<덕(나):25ㄱ>
ㅅㄴ其ㅅ<외:2ㄴ>
十<덕(가):37ㄱ>